



불교충지충

충지충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 충지충보

2011년 8월 3일  
음력 7월 4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충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지성(이기식)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5년 제141호

## 충지충 하반기 49일 불공 “진호국가불사” 회향

7월 16일 호국안민기원대법회 사원별로 봉행



의 용맹심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라 하였다. 지성 통리원장은 “49일 ‘진호국가불공’은 교도들이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불공이며, 끝까지 동참하신 교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국사원에서 봉행된 회향 법회에서 주교님들은 설법을 통해 효강 종령 예하의 유시문을 낭독하고, 원정 대성사님의 49일 불공 제정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충지충 교도들만이라도 항상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7월16일 각 사원별로 봉행된 ‘호국안민기원대법회’는 하반기 49일 불공의 회향과 ‘해탈절’ 방생의 의미를 기리는 자리였다. 서울 충지사 교도들은 강원도 동해에서, 부산 정각사는 경남 하동, 대구 개천사는 전남 구례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방생하였다. 각 사원에서는 돌아오는 길에 인근 사찰 탐방과 그간의 노고를 푸는 즐거운 자리를 가졌다.

김종열 기자

충지충 하반기 49일 불공 및 ‘진호국가불사’ 회향법회가 ‘해탈절’인 7월15일 서울 충지사를 비롯한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 되었다. 삼국시대부터 ‘외적의 침입과 환란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봉행된 불교 의식인 진호국가불사는, 1975년

충지충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수호국계주다라니경”을 근거로 의례와 “음흉야호사” 진언을 제정 하시면서 다시 그 법맥을 이으셨다. 1991년에는 상반기 불공은 ‘자녀 잘되기 서원 불공’으로 하반기 불공은 ‘현재 부모에 효순하고 선망부모의 해탈 서원

불공’으로 ‘특정’ 전 종령 당시에 제정되었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를 통해 “이번 법회를 통해 나라를 위한 마음은 물론이요, 평소 올바른 신행생활을 영위해나가는 길이 될 것이다.”고 말하고 전 교도들이 더욱 굳건한 신심과 불퇴전

## 충기 40년 ‘신규스승 법의 및 금가사 수여식’ 봉행 법선, 서강, 법상 시무 신규스승으로 임용



충기 40년 ‘신규스승 법의 및 금가사 수여식’이 7월22일 서울 충지사에서 봉행되었다.

효강 종령 예하를 모시고 봉행된 수여식에서 법선, 서강, 법상 시무가 신규스승으로 임용되었다.

회령 중앙교육원장은 1년 2개월간의 시무교육에 대한 수료증을 수여 하였다. 이어 효강 종령 예하에서 법의와 금가사, 뺏지, 그리고 행 위승서를 수여하였다. 지성 통리원장은 신규스승들에게 사령장을 수여하고 각각의 소임을 명하였다. 법선 정사는 입사 선서를 통해 계법을 준수하고, 스승을 공경하며 교법과 국법을 엄수하고, 또한 묘사의 행원으로 삼계중에 중생 제도를 버리지 않고, 이를 위해 어떠한 고난이라도 달게 받고 이를 극복하겠다고 엄숙히 선

해 신명을 바치겠다는 마음이 절로 솟을 것이다.”고 신규 스승들에게 설 하였다.

지성 통리원장은 인사 말씀을 통해 “오늘 새로이 스승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 사람이 출가를 하면 구족이 생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승이 되는 것은 개인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부처님의 가지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입사선서 하신 내용을 잘 지켜 종단과 불교계를 위한 행을 이루기를 서원합니다.”라고 당부했다.

수여식에는 효강 종령 예하, 지성 통리원장 및 통리원 집행부와 스승님 그리고 가족들이 참석하였다.

김종열 기자

종조법설

### 선 행(善行)

비록 많이 들었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안들은 것과 같아서 밥 먹는 말만 듣고  
배부르지 않는 것과 같다.

### 새로운 종풍운동(宗風運動)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관행 실천해 나갑니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 신임 청와대불자회장에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취임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뿐이다”



7월20일 청와대불자회는 박범훈 교육문화수석의 신임 회장 취임법회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스님과 각 종단 총무원장 및 불교총지중 인선 총무부장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법문을 통해 “백범선생은 ‘나의 소원’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강력은 남

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뿐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단군의 이상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며 정책을 입안하는 청와대 불자들은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바로 인식하고 발전시키는 선봉이 되길 당부했다.

신임 박범훈 회장은 취임사에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소위된 이웃들을 돌보고, 스님들의 수행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청와대불자회장으로서 각오를 다졌다.  
조계사 김종열 기자

## 중부지방 폭우 불교계 피해 확산 우면산 일대 불교 사찰 피해 심각

7월26부터 28일까지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 호우로 서울, 경기, 강원 지역 불교 사찰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27일 하루동안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일대에는 3 시간동안 약 135mm의 물폭탄이 쏟아져 천태종 관문사, 조계종 선학원 대성사, 보덕사 등 우면산 자락의 사찰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특히 관문사는 우면산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로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침수 되었다. 긴급히 복구에 나섰지만 계속되는 비로 정상적인 복구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은 관문사만 약 50억원으로 추정되

며, 다른 사찰의 피해 규모가 정확히 집계되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동두천 자재암, 정릉 보국사, 광명 금강정사에서 토사유출로 축대 붕괴등의 피해가 발생되었다. 방배동 불교 TV는 한때 침수로 방송중단의 위기까지 갔으며, 양희상 기술국장은 출근 중 토사에 휩쓸려 중태에 빠졌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자승스님)은 29일 ‘긴급재난구호대’ 60명 편성, 서초구 우면산 일대의 복구 현장에 투입했다.  
김종열 기자

## 원정 대성사(苑淨 大聖師) 31주기 멸도절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密敎)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 중흥의 견인자 역할을 하시고, 의궤(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인 충지충을 창종하셨습니다.

원정 대성사(苑淨 大聖師) 31주기 멸도절을 맞는 우리는 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종단 중흥을 위한 대역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 ◆ 일 시 : 충기 40년 9월 8일 ◆ 대 상 : 충지충 교도 및 모든 불자
- ◆ 장 소 : 충지충 전 사원



불교충지충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송 02)552-1082 //www.chongji.or.kr

▲ 원정 기념관



# 총지종 제2차 교육위원회 개최

## 교육위원 강의안 프리젠테이션



정사(흥국사 주교)는 호스피스 교육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삶과 죽음에 대한 불교적 정신을 심어줄 것이며 봉사 정신을 길러 참 불자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했다. 원당 정사(밀인사 주교)는 대승 장엄보왕경을 주제로 관세음보살 및 육자진언의 유래와 음마니반메흠의 수지 공덕 등에 대한 강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도현 정사(운전사 주교)는 불교상담심리학을 주제로 불교와 교도 상담, 그리고 심리학을 이용한 심리 치료 기법 등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이라 했다.

지성 총리원장은 총평을 통해 “종단내의 자체 강사 육성방안을 제창한 이래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프리젠테이션에서 교육위원 각자의 강의 능력이 어떻게 훌륭한 것을 보고 놀랐다. 향후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강의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각종 매체에서도 이런 능력을 심분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달라”고 당부 했다.

화령 중앙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 각자가 스스로 선택한 강의의 주제에 대한 독창성이 돋보이며 강의 기법이나 전달 방식 등이 매우 훌륭하다. 종단 내의 강의로만 만족해 할 것이 아니라 외부의 요청이 있을 때도 충분히 소화해 낼만한 역량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7월 22일 총지종 총리원 반야실에서 제2차 교육위원회(위원장 화령 중앙교육위원장)가 개최되었다. 지성 총리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위원으로 위촉된 7인의 정사가 향후 강의의 프리젠테이션과 함께 교육위원회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선 정사(관성사 주교, 총리원장인 화령 정사의 주관으로 진행된 강의 요약 프리젠테이션에서 각 위원들은 각자 개성 있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했다. 먼저 범우 정사(백월사 주교)는 물건 대신 꿈을 팔자는 일반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소재로 종단현실과 포교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케팅 기법과 관련하여 발표했다.

원 총무부장은 총지종 의제와 의식의 중심이 되는 존재불모 연구를 통한 존재보살에 대한 연구의 각자의 강의 능력이 어떻게 훌륭한 것을 보고 놀랐다. 향후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강의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각종 매체에서도 이런 능력을 심분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달라”고 당부 했다.

법경 정사(밀교연구소)는 총지종의 종학을 중심으로 총지종의 교리와 종사, 나아가서 밀교 전반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강의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목경 정사(총지사)는 상.장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적 상·장례를 어떻게 조화, 발전시킬 것인가, 그리고 불교적인 상·장례 문화의 정착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총지종만의 창조적인 상·장례문화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 강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정

### 총기40년 신규 임용스승 프로필

#### ◇법선 정사

- 1967년 서울 생
- 총기 29년 총리원 근무
- 총기 35년 총리원 총무계장
- 총기 37년 총리원 총무과장
- 총기 39년 시무 발령
- 총기 40년 승직(지승급)에 명함.
- 명·재단사무과장 겸 동해중 근무

#### ◇서강 정사

- 1969년 서울 생
- 총기 33년 대구, 경북 교구 교무
- 총기 39년 대구 개천사 교무
- 총기 39년 시무 발령
- 총기 40년 승직(지승급)에 명함.
- 명·총리원 총무과장 겸 총지사 근무

#### ◇법상 정사

- 1966년 부산 생
- 총기 37년 부산 정각사 교무
- 총기 38년 시무 발령
- 총기 40년 승직(지승급)에 명함.
- 명·정각사 근무

###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임원 연수 및 총회 개최 신임회장으로 BBS합창단 김영애 단장 선출



전국합창단연합회는 7월5일에서 6일까지 충남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2011년 총회 및 임원연수를 가졌다.

조계종 문화부장 진명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 총지종 마니합창단 박정희

단장, 손경옥 총무가 부산 만다라 합창단 김운경 단장이 참가하였다. 합창단 지휘와 발성법에 대한 교육과 율동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고, 총회에서는 전임 김귀련 회장에 이어 BBS불교방송 합창단 김영애 단장이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신임회장의 임기는 2013년 상반기까지이다.

김종열 기자



### 효강 종령 예하 예비 스승 특별 정신교육

효강 종령 예하께서는 7월 21일 총리원 총령 집무실에서 총기40년 신규 스승 임용 예정 시무들에게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셨다. 예하께서는 종조 법설집에 나와 있는 스승이 사명을 항상 마음에 새겨, 마음이 약해질 때

지침으로 삼으라 하셨다. 스승의 본분은 중생교화의 중차대한 사명이므로 항상 자신 있게 행동 할 것을 당부하셨다. 또한 외부 생활에서도 품위와 계행을 지켜 한 점 부끄럼 없는 스승의 길을 가라 하셨다.

### 서울 벽룡사 ‘도량청정, 수리공사’ 원만 법회 봉행



7월 19일 새로 이전하는 서울 벽룡사 ‘도량청정, 수리공사’ 원만 법회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주생빌딩 3층에서 봉행되었다. 지성 총리원장, 인선 총무부장, 시정 재무부장 등 총리원 집

행부와 법일 벽룡사 주교를 비롯한 서울.경인 지역 스승님 전원과 교도들이 참석했다. 성남 법천사 시정정사의 집전으로 봉행된 법회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 수행 정진을 거듭해온 벽룡사 이전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했다.

새로이 이전하는 벽룡사는 총지종이 지난 5월 매입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6층짜리 빌딩의 3층으로 총 면적은 118.34㎡(약 36평)이다. 벽룡사는 이전을 통해 서울 서남부 포교의 전진기지 역할을 충실히 할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열 기자

### 2011년 불교총지종 기념합창문화제 준비사항 점검 회의 개최

7월 26일 총지종 기념합창문화제 준비사항 점검 회의가 지성 총리원장, 인선 총무부장을 모시고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 김운경 단장을 비롯 전국 합창단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리원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오는 10월 29일 개최 예정인 ‘2011년 불교총지종 기념합창문화제’ 준비사항 점검을 위한 자리였다. 먼저 행사 대

행사의 브리핑을 듣고, 레파토리,의상,일정 등 세부 사항을 토론했다. 이번 행사는 총기 40년을 맞아 종단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사부대중이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만드는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국제제가불자대회에 참석하는 외국 불자들에게 한국의 격조있는 불교문화와 대중문화의 융합을 보여주고 생활 속의 불교 현장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기로 협의했다. 지성 총리원장은“이번 합창문화제는 교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화합의 장을 이루어,전 세계 불자들에게 총지종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합시다.” 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이번 합창제는 오는 10월 29일 여의도 KBS홀에서 성대히 막을 올릴 예정이다.

김종열 기자

#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6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         |      |        |
|---------|------|--------|
| 개천사 무명씨 | 7/13 | 10,000 |
| 개천사 이희권 | 6/30 | 10,000 |
| 개천사 이희권 | 7/25 | 10,000 |
| 개천사 전경택 | 7/15 | 20,000 |
| 관성사 박현숙 | 6/27 | 10,000 |
| 관성사 황성녀 | 6/28 | 10,000 |
| 관음사 신막심 | 7/21 | 10,000 |
| 기 로 대관  | 7/25 | 10,000 |
| 기 로 대자행 | 7/25 | 10,000 |
| 기 로 밀공정 | 7/25 | 10,000 |
| 기 로 법수원 | 7/25 | 10,000 |
| 기 로 법장화 | 7/25 | 10,000 |
| 기 로 법지원 | 7/25 | 10,000 |
| 기 로 불멸심 | 7/25 | 10,000 |
| 기 로 사홍화 | 7/25 | 10,000 |

|           |      |         |
|-----------|------|---------|
| 기 로 상지화   | 7/26 | 10,000  |
| 기 로 수증원   | 7/25 | 10,000  |
| 기 로 총지화   | 7/25 | 10,000  |
| 단음사 법연지   | 7/15 | 10,000  |
| 단음사 신정회일동 | 7/20 | 370,000 |
| 단음사 천공    | 7/5  | 4,000   |
| 만보사 민순분   | 6/30 | 20,000  |
| 만보사 민순분   | 7/25 | 10,000  |
| 만보사 박선희   | 7/18 | 20,000  |
| 만보사 정덕순   | 6/28 | 10,000  |
| 밀인사 묘심해   | 7/18 | 10,000  |
| 밀인사 원당    | 7/18 | 10,000  |
| 밀인사 이연수   | 7/5  | 10,000  |
| 밀인사 이연수   | 7/24 | 10,000  |
| 밀인사 이채원   | 7/13 | 10,000  |

|         |      |        |
|---------|------|--------|
| 밀인사 이혜성 | 7/13 | 20,000 |
| 밀인사 이희원 | 7/12 | 10,000 |
| 밀인사 정정희 | 6/29 | 5,000  |
| 백월사 김현중 | 7/21 | 10,000 |
| 백월사 조미정 | 7/21 | 10,000 |
| 법천사 지정  | 7/25 | 10,000 |
| 법천사 원만원 | 7/25 | 10,000 |
| 벽룡사 무명씨 | 7/6  | 20,000 |
| 벽룡사 무명씨 | 7/6  | 20,000 |
| 벽룡사 무명씨 | 7/6  | 30,000 |
| 벽룡사 양정현 | 6/28 | 10,000 |
| 벽룡사 양지현 | 6/28 | 10,000 |
| 벽룡사 이종호 | 6/30 | 40,000 |
| 선립사 심지장 | 6/29 | 10,000 |
| 선립사 정복지 | 6/29 | 10,000 |

|           |      |         |
|-----------|------|---------|
| 성화사 우담바라회 | 7/21 | 35,000  |
| 수인사 김봉기   | 6/27 | 10,000  |
| 수인사 장영택   | 7/1  | 50,000  |
| 승천사 원봉    | 7/20 | 10,000  |
| 승천사 지선행   | 7/20 | 10,000  |
| 실보사 송희원   | 7/4  | 10,000  |
| 실보사 정법계   | 7/20 | 10,000  |
| 실보사 조순애   | 7/12 | 100,000 |
| 실보사 해정    | 7/20 | 10,000  |
| 실지사 정우석   | 7/14 | 10,000  |
| 운천사 반야화   | 7/22 | 20,000  |
| 운천사 이권자   | 7/13 | 10,000  |
| 정각사 구정희   | 7/13 | 20,000  |
| 정각사 김문수   | 7/18 | 10,000  |
| 정각사 이정선   | 7/22 | 5,000   |

|           |      |         |
|-----------|------|---------|
| 지인사 승호제   | 7/20 | 10,000  |
| 지인사 허성동   | 7/21 | 20,000  |
| 지인사 인강방생회 | 7/18 | 280,000 |
| 총지사 이인성   | 7/8  | 30,000  |
| 화음사 강순란   | 6/28 | 5,000   |
| 흥국사 지정    | 7/20 | 20,000  |
| 박말조       | 7/25 | 5,000   |
| 박종석       | 7/1  | 20,000  |
| 신바        | 7/6  | 100,000 |
| 안호정       | 6/27 | 20,000  |
| 이혜원       | 6/30 | 5,000   |
| 최순전       | 6/28 | 20,000  |
| 한영희       | 7/8  | 10,000  |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편집위원이 가다**” ‘145년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

# 조선왕실 의궤 세계 최고 기록문화의 “꽃”

지난주까지 전국에 비를 뿌리던 장마는 온데간데없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여름의 오후다. 편집위원회는 지난 5월 말 프랑스 정부로부터 영구임대방식으로 반환 받은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을 취재하기위해 국립중앙박물관에 모였다. 188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은 강화도 외규장각에 보관 중이던 조선왕실 의궤를 약탈해간다. 그로부터 14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조선왕실 의궤가 일반에 최초로 공개되었다. ‘145년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란 이름으로 국립중앙박물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7월 19일부터 9월18일까지 두 달간 열린다.

중앙박물관 입구를 들어서자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붐볐다. 방향을 맞춘 학생들과 의외로 중. 장년층이 많이 관람하고 있었다. 편집위원들은 의궤 관람에 앞서 일층 선사유물관과 3층 불교조각실을 둘러보며, 우리 민족이 살아온 발자취와 불교조각의 아름다움을 잠시 감상하였다.

잠시 휴식을 가진 후 서둘러 일층 특별전시실로 향했다. 먼저 의궤에 대한 개괄을 살펴보니, 조선왕실 의궤는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세계적인 기록문화의 정수다. 조선왕조 전반에 걸쳐 의궤는 꾸준히 제작되어 예(禮)를 중시하는 유교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또한 조선시대의 통치 철학 및 운영체계를 파악 하는데 중요한 기록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에 반환된 외규장각 의궤는 대부분 국왕의 열람을 위해 제작한 어람용(御覽用)이라는 점과 국내외에 한 점밖에 없는 유일



본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이 의궤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모두 6부로 나누어 전시하였다.

편집위원들은 전시 동선을 따라 1부부터 살펴보았다. 이 부분에서는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정수인 의궤의 개념과 구성을 설명하고, 정조(조선 제22대 임금)대에 강화도 행궁에 외규장각을 완공, 어람용 의궤 등 왕실의 중요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 보여 준다. 이밖에 동시에 제작한 어람용과 분상용의 의궤를 나란히 전시하여 표지, 본문, 도설을 비교해 볼 수 있어 이해가 쉬웠다.

2부의 주제는 ‘왕권과 통치’로서 의궤 속에 보이는 조선시대 통치 이념을 살펴보고자 종묘제례, 진경, 영건, 녹훈에 관련 의궤를 전시했다. 특히 한글 문장이 적혀있는 『보사녹훈도감의궤』(1682년, 속종 8) 유일본은 희귀한 사례로 주목되었다.

3부는 ‘나라의 경사’로서 왕실의 혼례, 책봉, 존호 등에 관한 의식을 기록한 의궤를 전시했다. 조선시대에는 의식 및 행사를 집행하는 임시기구인 도감을 설치하고, 각각의 업무를 분담하는 하부 조직들을 구성하여 국가의 행사를 치렀다. 전시된 의궤는 행사에 쓰인 제작물품의 목록과 재료, 장인 명단, 도설과 행렬 그림인 반차도를 확인할 수 있다.

4부는 ‘왕실의 장례’에 관한 기록이었다. 왕실 의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죽음과 관련된 의식이다. 특히 왕과 왕비의 장례는 국장으로, 임종과 장례 준비, 무덤의 조성, 장례 행렬, 삼신상 동안의 제사 등이 모두 엄숙하고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를 기록한 국장도감, 빈전도감, 산릉도감 의궤를 통해 장례의 과정을 이해 할 수 있었다.

5부의 주제는 ‘추모와 기억’으로 3년상을 마친 후 혼전의 신주를 종묘로 모시는 부모, 세상을 떠난 왕과 왕비에게 일생을 함축한 이름을 올리는

시호, 왕의 초상을 그리는 영정 제작 등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선왕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추모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싶었다.

마지막으로 6부에서는 1866년 병인양요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외규장각 의궤의 귀환 과정을 보여 주었다. 병인양요 때 참전했던 프랑스 해군 위베르의 기록 등 관련 서양서들을 통해 약탈 과정을 소개했

편집위원들은 조선 왕실의 꼼꼼한 기록 문화에 감탄하고, 의궤를 되찾기 위한 그동안의 과정에 놀랐다. 재발 서지학자 박병선 박사가 1975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서고에서 의궤를 최초로 발견한 때로부터 2011년 고국으로 돌아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했다. 단지 아쉬운 점은 영구 반환이 아닌 5년 단위로 임대 계약을 연장하는 영구 임대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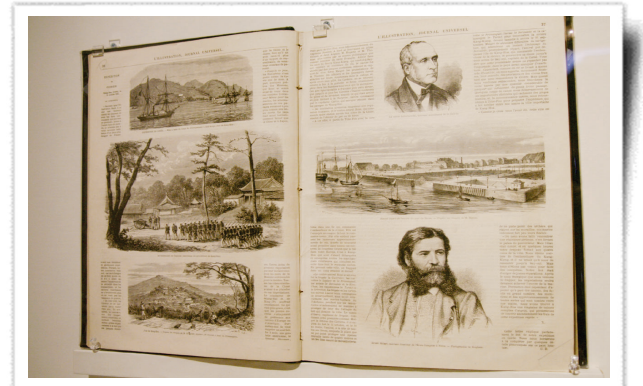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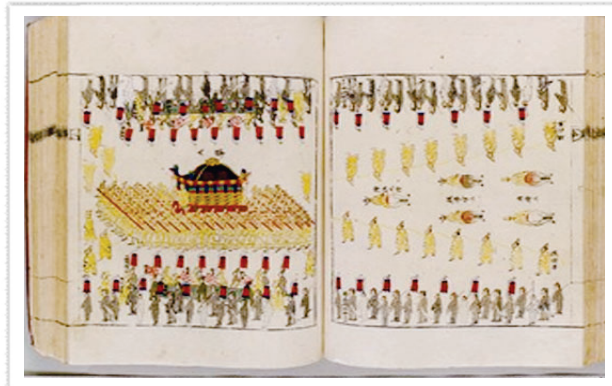


다. ‘숙종의 일생과 의궤’ 테마 코너에서는 외규장각 의궤 중 숙종의 일생과 관련된 것들을 전시하였고, 의궤 하이라이트 코너에서는 외규장각 의궤 중 8점을 선별하여 시기적인 변화 양상과 특징을 살펴수 있도록 구성되어있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의궤의 다양한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영상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이 눈에 띄었다. 관람객들은 의궤의 구성과 목차, 가례도감의궤나 국장도감 의궤에 그려진 장대한 행렬 및 의식에 사용한 물품의 도설을 영상을 통하여 다각도로 접할 수 있다.

식을 취했다는 점이다.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6.25동란 등 혼란의 역사 속에서 수 많은 문화재들이 서구로, 일본으로 유출되었다. 의궤의 반환은 흩어진 우리 문화재 환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야하고 편집위원들은 입을 모았다. 여름 방학을 맞은 중. 고. 고도들도 가족과 함께 관람하여 145년 만에 돌아온 조선왕실 의궤를 직접 만나볼 것을 권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취재 : 편집위원 이인성, 박묘정, 박정희, 최영아 정리: 김종열 기자

## 외 규장각 반환 일지

- 1886년 병인양요 프랑스군 강화도 외규장각 약탈
- 1975년 서지학자 박병선 박사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외규장각 도서 발견
- 1991년 서울대 규장각 정부에 반환 추진요청 한국정부 프랑스에 외규장각 도서 반환 공식요청
- 1993년 프랑스수 미테랑 대통령 ‘회경원원소도감의궤’ 한글 전달하고, 반환약속
- 1999년 한국.프랑스 전문가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시작
- 2001년 프랑스 어람용 의궤 67권 국내 고문서와 교환 합의 여론의 반대로 무산
- 2002년 국내전문가 외규장각 도서 실사 진행
- 2007년 시민단체, 문화연대 파리행정법원에 반환소송제기
- 2009년 파리행정법원 반환소송기각
- 2010년 3월 한국정부, 프랑스에 영구 대여 공식 요청
- 2010년 11월 한·프 정상회담 5년 단위 갱신 방식 합의
- 2011년2월 한·프 정부간 공식 합의문 작성
- 2011년3월 5월 말까지 의궤 296권 한국에 이관기로 합의
- 2011년5월27일 도서 반환 완료



# 조상영식과 선망부모의 왕생성불을 서원합니다



영식천도 영험도량 “불교 총지중 수인사”  
조상과 선망부모의 영위(靈位)를 수인사에 모십시오!

자손들의 재난소멸과 일체 서원성취를 위하여 생전(生前)에 본인의 명패를 득락전에 미리 봉안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고통의 사바세계를 떠나 즐거움이 가득찬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의 전당이 득락전입니다. 득락전에 조상·선망부모의 영위를 모시고 왕생성불을 발원하는 천도재 및 기제 불공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 불교 총지중 수인사

경북 포항시 북구 석산동 120-1 (전화:054-247-7613 , FAX: 054-247-7615)

주교 지 공 정사·지회심 전수 합장



불교의 선정 ⑤

이상적인 선정은 지와 관이 균형을 이루어야



화령  
(중앙교육원장)

지혜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개발해야

선정의 목적은 의식을 멈추고 나 무나 돌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다. 즉 무의식의 생물체와 같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의식이라는 것이 멈추려고 한다고 멈추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극도의 자기 최면 하에서 의식이 멈춘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스스로도 잠시 표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 상태에서 손바닥에 못을 박거나 혀에 철사를 꽂는 등 끔찍한 고통이 가해져도 본인은 잠시 그러한 상태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가 인간 생활을 개척해 나가는 데에 있어 무슨 소용이 되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자기 몰입, 자기최면의 상태에서 잠시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하여도 그 과정이 끝나면 엄연한 현실이 다시 눈앞에 버티고 서 있게 된다. 그러한 현실을 지혜로써 타개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은 어디까지나 지혜를 개발하여 눈앞의 괴로움은 물론 그 어떤 괴로움도 영원히 멸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명상을 하면서 목적과 같이 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더러 있지만 지혜의 개발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러한 선정은 마취제를 맞은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선정은 선정에 들어 있을

동안에는 한없는 안락감을 누리지만 정의를 상태를 벗어나면 괴로움이 가득한 현실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런 식의 선정을 즐기는 사람 중에는 지혜의 개발은커녕 오히려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그러한 까닭이다.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불교의 간판을 내걸고 기괴한 행동으로 불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혜의 개발을 전제하지 않는 자아도취적인 선정은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외도들의 선정은 이런 자기최면적인 황홀 상태에 드는 것을 명상의 궁극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

멸수상정은 아라한과와 같은 경지

불교에서는 아홉단계의 선정을 설정 구차제정의 멸진정은 법상의 차원에서 색계사선의 근본정과 무색계정의 네 가지 선정은 팔등지(八等

하여 무색계의 사선을 거쳐 마지막에 멸진정에 머무르시자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입멸하신 줄 알았다.

그러나 천안제일 아나뫼다는 부처님께서는 아직 입멸하신 것이 아니고 멸진정에 들어가셨다고 알려준다. 그리고나서 부처님께서는 다시 멸진정에서 나오셔서 비상비비상처를 거쳐 색계초선까지 이르셨다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 지와 관이 균등하다는 색계 제사선에서 마침내 열반하셨다고 경전에서는 말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멸진정은 심작용이 멈추어 어떠한 동요도 없지만 미세한 생명활동은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멸진정은 선정의 힘에 의하여 심신의 활동을 멈춘 채로 언제까지나 살아있을 수 있다는 믿음에 의하여 시달된 것으로 외도들의 무상정(無想定)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



▲대일여래 부처님께서 지권인 수인을 하고 있다.

그러자 아난다가 다시 물었다. “지를 몸에 익을 때까지 닦은 뒤에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관을 몸에 익을 때까지 닦은 뒤에는 무엇이 이루어 집니까?”

그러자 다시 상좌비구들이

대답했다. “아난 존자여, 지를 몸에 익을 때까지 닦으면 결국 관이 이루어지고, 관을 몸에 익을 때까지 닦으면 결국 지가 이루어 집니다. 이른바 불제자는 지와 관을 함께 닦아 모든 해탈의 경계를 얻습니다.”

아난다가 다른 비구들에게도 똑같이 물었더니, 모두가 지와 관을 함께 닦아 해탈을 이룬다고 대답했다. 아난다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부처님께 사죄했더니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한 상좌비구들은 모두 다 해탈을 얻은 훌륭한 아라한이라고 칭찬하셨다.

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를 통하여 관을 닦고 관을 통하여 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와 관을 함께 닦아야 해탈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지와 관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선정법은 해탈을 얻기 위한 지혜를 개발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지와 관이 균형을 이루는 색계 사선이 가장 이상적인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선정의 목적은 참된 지혜를 개발하는 것

至)라고도 하고 사선팔정(四禪八定)이라고도 한다. 여기에 더하여 멸진정(滅盡定)이라는 것이 있다.

팔정에다가 멸진정을 더하여 구차제정(九次第定)이라고 한다.

멸진정은 자세하게는 멸수상정(滅受想定)이라고 하는데, 아나함이나 아라한과 같은 뛰어난 성자만이 이를 수 있는 경지라고 한다. 다른 팔정은 외도들이나 범부들도 노력에 의하여 이를 수 있지만, 멸진정은 불교의 성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기 때문에 불교특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멸진정은 수(受)나 상(想) 등의 일체의 심작용을 멸한 무념무상에 의하여 심신의 안락에 머무르기 위하여 들어가는 경지라고 한다. 멸진정은 일체의 심작용을 멸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움직임이 없어 죽은 상태와 같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입멸 하실 때에 “비구들이여, 제행무상이니 게으르지 말고 노력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남기시고 색계초선에서 시작

로 보여진다. 따라서 멸진정은 단지 법상(法相)의 차원에서 시달된 것으로 비상비비상처정의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와 관이 균형을 이루는  
색계 사선이 이상적 선정

아무튼 이처럼 선정의 깊이에 따라 구차제정의 단계가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선정은 지와 관이 균형을 이루는 색계사선, 그 중에서도 제사선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전에서도 지와 관을 함께 닦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잡아함경》에 보면 아난다가 코살라국에 있을 때 여러 상좌비구들에게 이렇게 물을 적이 있다.

“만일 비구가 수행하기 좋은 한적한 장소나 나무 아래, 또는 조용한 방에서 사유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면밀히 사유하여야 합니까?”

그러자 상좌비구들이 이렇게 대답했다.

“아난 존자여, 지와 관으로써 사유하여야 합니다.”

총지동의보감

여름철 임신부 건강관리



조선화 원장  
(여성 美 한의원)

자궁하수증(子宮下垂症)은 말 그대로 자궁이 아래로 빠져 내려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자궁탈출증(子宮脫出症)이나 음탈(陰脫)이라고도 합니다.

트레스를 많이 받는 여성,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등의 상황에서 생식기능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자궁하수는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질에 3-4CM정도 깊이로 손을 넣어 보았을 때 자궁경부가 만져지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자궁이 질입구까지 나온 것, 세 번째 단계는 질 밖으로 완전히 빠져 나온 경우입니다. 주로 1단계까지는 생활에 특별한 지장을 받지 않지만 2,3 단계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주게 되어 보행 시 불편하거나 소변을 자주보거나 지리는 경우, 대변장애 등으로 수술을 요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궁하수의 원인이 되는 비위소화

기능을 회복해야 증상이 개선된다

주로 결혼후 출산을 마친 여성들에게 발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골반강내에서 자궁을 지탱하고 있어야 하는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면서 자궁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주지 못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출산과 유산후 충분한 조리과 회복과정을 거치지 못했거나 평소 자궁근종이나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 등과 같은 자궁난소질환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평소 하복부가 차고 냉해 자궁이 위치한 하복부골반주변으로의 원활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자궁난소를 비롯한 주변생식기능이 약해지게 되면서 유발됩니다.

최근에는 결혼전의 미혼여성들에게서도 자궁하수증을 종종 보게 되는데 평소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등이 있고 손발이나 하복부가 차고 냉한 여성, 성격이 예민하거나 스

양방에서는 하수된 부분을 수술로 제거해 주변인대 등과 연결시키게 되지만 근본적인 자궁하수의 원인을 찾아 개선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고 반복될 경우 자궁자체를 적출하게 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자궁하수의 원인이 되는 비위소화기능을 중심으로 약해진 기운을 회복하고 자궁과 난소 및 주변생식기능을 회복해 아래로 쏠려져 내리는 기운을 상승하게 함으로 증상을 개선하게 됩니다.

그 외에 질과 항문주변을 조이는 케겔운동과 하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해 자궁골반으로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기위한 반신욕, 좌훈, 찜질, 뜸 등의 방법도 증상완화와 수술이나 치료후 재발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총지정보 구독신청 및 문의

전화 : 02) 552-1080

메일 : Jukah@paran.com



생혈액분석기



자동팔강진단기



조음파



온열전기침



제주마지르기



좌훈욕기



여성 美 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자(임질),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좌와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진료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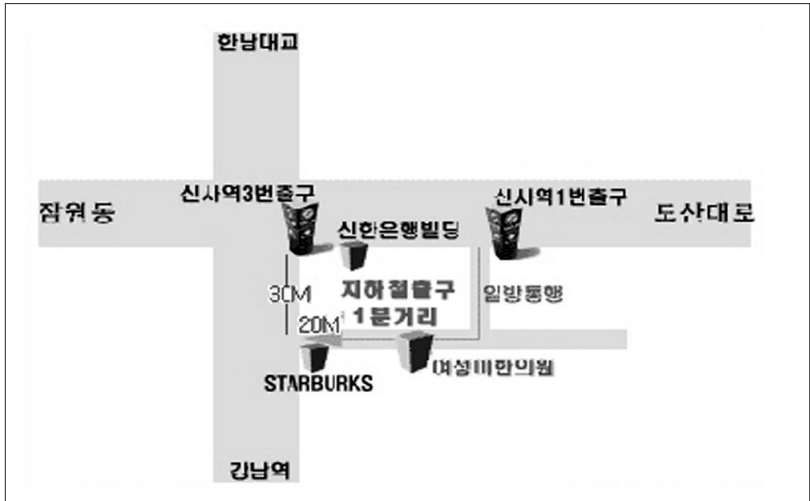
평 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 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육아TV “전문의 상담”





지상설법



〈총지사 주교 선도원〉

성도합니다.

요즈음 전국이 수해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먼저 교도님의 가정과 이웃, 친지들은 안녕 하신지요? 7월 27일에는 총지사가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 물폭탄이라 불릴만큼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통리원이 있는 총지사는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근의 주민과 사찰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들어 마음 한구석이 아파옵니다.

중생들이 아무리 영리하게 세상을 꾸린다 해도 자연의 큰 힘 앞에서는 아무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또 다시 확인했습니다. 중생들의

오만함에 대한 자연의 경고이기도 하고, 또 이를 공부삼아 열심히 정진하라는 부처님의 뜻이라고도 생각 합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 올수 있도록 교도들이 함께 서원하고 불공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2,3년 전이었나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는 대사가 대히트를 친 일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으로 기억하는데, 남녀 주인공들이 주고 받은 말 한마디가 서로의 애뜻한 사랑을 표현해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드라마를 쓴 작가가 혹시 불교에 조예가 깊은 분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확인 할 길은 없었지만 말입니다. 경전에는 중생의 아픔을 끝없는 연민의 정으로 표현한 유마거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교 총전 ‘제4권 자기에 대한 덕의, 제1장 (8)중생이 병들면 보살도 병이 든다.’에는 유마거사의 일화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유마거사가 병들어 고통스러워 한다는 말을 듣고 문수보살을 보내시어 병문안을 하는 장면입니다.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병환은 좀 어떠십니까? 부처님께서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다. 병은 어찌서 났으며, 얼마나 오래 됐으며,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었습니까?” 물으셨습니다. 이에 유마거사가 대답하기를 “내 병은

어리석음을 좇아 애착이 생겼고, 모든 중생이 병든 때문에 나도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해 생사에 들고 생사가 있으면 병이 있게 마련입니다.

중생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보살도 병이 없을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외아들을 둔 장자가 그 아들이 병들면 부모도 병들고, 아들의 병이 나오면

문병하게 된 것입니다. 유마거사의 병을 알게 된, 문수보살은 “병든 보살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극복해야 합니까?”라고 다시 묻습니다. 유마거사는 “내병은 모두 전생의 망상과 뒤바뀐 생각과 모든 번뇌 때문에 생긴 것이지 결코 병에 걸릴 만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대(四大)가 결합되어 몸이라 집짓 부르고 있을뿐, 사대에도 실

교도여러분!

혹시 경주 석굴암에 가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신라의 재상 감대성이 발원하여 지었다는 석굴암에는 우리가 잘 볼 수는 없지만 유마거사 상이 모셔져있습니다. 본존 부처님으로 통하는 길목에는 사천왕(지국전, 증장전, 광목전, 다문전)상이 지키고 있고, 주벽의 위쪽에는 남북과 동으로 각각 5개씩 10개의 반구형 감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미륵보살과 더불어 유마거사가 부처님을 바라보며 앉아계시지요. 수많은 보살 들 중에 당당히 자리를 같이 하신 유마거사는 비록 머리 깎고 출가하지는 않았지만 대비심의 보살도를 성취한 재가불자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드라마의 대사 “아프냐? 나도 아프다.”에서는 세속의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한 얘기지만 이보다 훨씬 앞서 보살도를 성취하신 유마거사는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란 간절한 한마디로 모든 중생의 아픔을 같이 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도 탐·진·치로 연유한 모든 악업과 번뇌를 불퇴전의 수행 정진으로 물리치고 보살도의 서원을 반드시 이루어야겠습니다. 끝으로 교도님들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이루고자하는 서원 모두 원만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옵마니반베호

“중생이 병들면 보살도 병든다”

보살의 병은 중생에 대한 대비심에서 생겨

부모의 병이 낫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도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의 병은 대비심(大悲心)에서 생깁니다.”라 말합니다. 유마거사는 문수보살에게 자신의 병은 몸의 병이 아니라 중생들에 대한 걱정으로 생긴 병이라 합니다. 유마거사가 누구입니까? 인도의 대부호로 불법에 대한 공부가 뛰어난 선지식으로 평가받던 분입니다.

이미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차례로 유마거사에게 법에 대한 지적을 당한 터라 아무도 선뜻 병문안을 나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를

제 주제가 없으며, 육체에도 나(我)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병이 생긴 것은 모두가 나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라 대답 합니다.

이는 중생들의 탐·진·치에 연유한 번뇌가 곧 보살의 아픔이라 말하며, 이는 집착이 부른 것이므로 이를 끊어야 보살의 아픔인 중생의 병이 치유된다 합니다. 유마거사는 비록 출가한 비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보살도의 깊고 미묘한 진리를 체득한 분이지요.

나와 중생이 둘이 아닌 하나이므로, 중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치료하고자 한 것입니다.

진리의 여율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괴로움을 까마귀가 말하였다.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제일 괴롭다. 배고프고 목마르면 몸이 아위고 앞이 안 보여서 사람이 쳐놓은 그물에 몸이 걸리기도 하고 칼날을 돌아볼 틈이 없으니 우리들이 몸을 잃은 것은 모두가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독사가 말하였다. “성냄이 가장 괴로운 것이다. 독한 마음이 한번 일어나면 친하거나 친하지 않은 이를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죽이고 자기 자신까지도 죽이기 때문이다.”

사슴이 말하였다. “두렵고 무서운 것이 가장 괴롭다. 나는 숲 속에 있을 때 마음이 항상 두

렵다. 그래서 비슷한 소리만 나도 나는 곧 달아나다가 구덩이에 빠지곤 한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헤어지고 간담이 두근거린다. 그러기 때문에 놀랍고 두려운 것이 제일 괴롭다.”

그러자 비구가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말하였다.

“너희들이 말 한 것은 모두 지말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고통의 근본을 깊이 생각한 말이라고 할 수 없다. 천하의 괴로움은 이 몸보다 더한 것이 없다. 몸은 괴로움의 그릇으로서 근심과 두려움이 한량없이 많다. 나는 이 때문에 세속을 버리고 도를 배우서 뜻을 멀하고 생각을 끊어 사대를 탐하지 않고 괴로움의 근원을 끊으려 열반에 뜻을 두고 있다. 그런 까닭에 몸이 가장 큰 괴로움의 근본임을 알아야 한다.”

제가자의 괴로움, 출가자의 괴로움

제가자는 만일 돈이 불어나지 않고, 금·은·진주·유리·수정들이 다 불어나지 않으며, 목축과 미곡과 노비와 심부름꾼 또한 불어나지 않으면 크게 걱정하고 괴로워 하며 시름하고 슬퍼한다. 그러나 집을 나와 도를 배우는 사람은 만일의 행이 그 욕심을 따르고 행이 성념과 어리석음을 따르면 크게 걱정하며 시름하고 슬퍼한다.

(중아함경 제35권 148. 하고경에서)

세속인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

집에 사는 것은 감옥과 같고 처자는 형틀만 자물쇠와 같으며 재물은 무거운 짐과 같고 친척은 원수와 같다.

그런데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깨끗한 금계(禁戒)를 받아 지니고, 여섯 때(六時)로 도를 닦으며, 겸하여 해마다 삼장재(三長齋)와 달마다 항상 육재(六齋)를 지내며, 채소로 맛을 절제하

고 몸과 입을 단속하여 마음이 밖으로 치달리지 않아서 오로지 세속 벗어나기를 숭상하고 부처님 법을 높이 사모하여 굶어보고 우러러 보기에 결함이 없고 앓고 늙기에 실수가 없으며,밤에는 밝은 모양에 마음을 붙들어매고 낮에는 깨끗한 법을 생각하며, 사물을 공경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속을 이롭게 하라.

(열반경에서)

괴롭더라도 복을 닦아라

부처님 법이 끝 날려고 할 때에 속인이 법을 보호하며 선(善)을 닦아 천상(天上)에 태어나는 것은 마치 허공에서 눈이 내리는 것과 같고, 비구가 계율을 어겨 악한 세계에 떨어져 빠지는 것은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같다.

마땅이 알라. 괴로움 속에서 복을 닦으면 그복이 가장 크고 복속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가볍지 않다. 그러므로 괴로움에서 즐거움으로 들어가면 즐거움 가운데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

즐거움에서 괴로움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괴로움 가운데 괴로움을 안다.

(제경요집 제7권)

여덟가지 괴로움

여덟가지를 괴로움이라 한다. 즉 태어나는 괴로움, 늙는 괴로움, 병드는 괴로움, 죽는 괴로움,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괴로움, 미운것과 만나는 괴로움, 구하는 것을 얻지못하는 괴로움, 다섯가지 음(陰)으로 이루어진 괴로움이다.

(대반열반경)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괴로움

어떤 것이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괴로움인가.

사랑하는 물건이 파괴되거나 흩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으니 인간의 5온이 부서지는 것이다. 이것을 사랑하는 것과 천상의 6온이 부서지는 것이다. 이것을 사랑하는것과 이별하는 괴로움이라 한다.

결식하는 이유

극히 하천하고 가장 낮은 삶은 결식하는 삶이다. 머리카락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발우를 들고 다니므로 세간에서는 이런 삶을 크게 꺼린다. 하지만 생·노·병·사와시름·울음·걱정·번민을 끊어하고, 온갖 거대한 괴로움의 쌓임을 없애려 하기 때문에 수행자는 집을 나와 도를 배우며 결식의 삶을 택하는 것이다.

(중아함경)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어떤 것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가 희망하는 것을 구하였지만 얻지 못하는 것과, 힘을 많이 쓰고도 과보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대반열반경)



2011년도 햇보리자 총지종108염주

보리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천은사 보리자이고, 모주는 패다라에 육합상을 조각했으며, 간주로는 천원 백수정 10개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패다라란 인도에서 종이 대신 글자를 새기는 데 쓰인 나뭇잎을 말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나뭇잎에 새겨두었으므로 바로 경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 열매로 모주를 만들었기에 부처님 말씀을 늘 수지한 경전과도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패다라 모주 108염주로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패다라(貝多羅) : 經은 梵語로 수다라(sutra)라고 하는데 바로 번역하면 선. 관(線. 貫)이 된다. 이것은 곧 부처님의 말씀을 패다라 나무 잎에 써서 끈으로 엮었기 때문이다...





## ‘한국전통사상총서’ 한글역 출간기념 봉정법회 봉행 고승문집 90여종을 총13권의 한글번역 완료



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 위원회는 7월 1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한국전통사상총서’ 한글역 출간기념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지관스님(조계종 전 총무원장), 지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 해종스님(조계종 포교원

장),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재희 국회문화위원장,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사부대중 3백여 명이 동참했다.

조계종은 2006년 12월부터

2012년6월 까지 ‘한국불교전서’ 중 대표적인 고승 문집 90여종을 선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한글역과 영역 각 13 권씩 총26권을 발간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날 봉정법회는 그중 한글 역 13권의 발간을 부처님께 고하는 자리였다.

한국전통사상총서는 권1 원효, 권2 지눌, 권3 휴정, 권4 화엄1, 권5 화엄2, 권6 제교학, 권7-1 공안집, 권7-2 공안집, 권8 선어록, 권9 시선집, 권10 문화, 권11 계율, 권12 비문집 등 총1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이번에는 총서로 번역했고, 20012년 6월까지 영어로 번역하여 총 26권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지관스님

은 간행사를 통해 “불교문헌번역의 오랜 전통인 다자번역을 통해 완성된 총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룬 위대한 불사이며, 앞으로 영역 본 완성을 통해 1,700년 한국 불교의 전통유산이 전 세계로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스님은 “이번 총서 완간을 통해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의 나아갈 방향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완간사를 하였다.

정병국 문화 관광부 장관과 전재희 국회문화위원장 등이 축사를 하였고, 특히 정병국 장관은 “연등축제가 연내 무형문화재로 등록 되도록 하고, 템플스테이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며 정부의 대불교계 지원을 다짐했다. 2012년 완간되는 총서는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에서도 볼 수 있는 전자책으로도 출간될 예정이다.

조계사=김종열 기자

## 진각종 제11회 회당문화대축제 개최 7월25-27일 울릉도 도동항 일원에서



진각종 회당문화축제위원회는 제11회 회당문화축제는 7월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되었다.

25일 도동항 소공원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체험 및 문화마당’ 행사로 독도와 나라 사랑을 위한 소원지 달기, 독도의 날 제정 1천만인 서명운동, 울릉도·독도 사진전, 독도 홍보물 배부 등을 비롯해 페이스페인팅, 전통 부채 만들기, 풍등 서원 접수 등이 열렸다. 26일 저녁 울릉군민회관에서는 ‘동해 지킴이 위문콘서트’

는 울릉도지역의 해군, 공군, 전·의경 등 500여 명을 특별 초청한 가운데 현지 주둔 부대소속 밴드 초청공연 등을 진행했다. 또 공연 후에는 소정의 위문품을 장병들에게 전달 노고를 치하했다.

마지막날에는 도동항 특설무대에서 ‘독도아리랑 콘서트’를 열었다. 초청 가수로 안치환 밴드를 비롯해 뉴트리팝스밴드, 가수 이종만씨, J&B 소울, 소프라노 김양희씨의 공연이 열기를 더했다. 이밖에도 울릉도·독도사랑 주제의 샌드애니메이션 퍼포먼스, 울릉도 저동 꿈나무어린이집 원생과 울릉도 태권도협회 초청공연도 이어졌다. 회당문화축제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종교적 의미를 벗어나 주민과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함께 하는 축제를 여는데 안점을 두었다.

울릉 도동항=김종열 기자

### ‘불교의 생명 사상과 생태·환경을 위한 역할’

#### 천태종 공개토론회 개최

천태종 산하 (사) 소백산지킴이는 7월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불교의 생명 사상과 생태·환경을 위한 역할과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운 스님(소백산 지킴이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갈수 스님(소백산지킴이 상임이사), 황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휘중 강원대 환경연구소 연구교수, 양기식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축사에서 “사바든 극락이든 국토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장엄하는 것”이라며 “외부에 있는 물리적 자연에서 환경을 발견하려 할 것이 아니라, 안팎을 초월해 ‘스스로 그러함’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

론회에서 고려대 조성택교수는 “최근 환경 문제를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자연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제로 인식하기시작했다.”며 불교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삶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는 “불교 환경운동이 소비만능과 물질주의로 치닫던 삶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기는 했지만 최종 목표는 평화생명운동으로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불교환경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소백산지킴이는 당초 소백산을 중심으로 한 환경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황사·기름유출·원전 방사능누출 등의 문제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불교의 생명관과 생태환경관에 기초한 생태·환경 운동을 펼치고 있다.

김종열 기자

## 티벳 여성불자의 수행처는 가정으로 부터

린첸 칸토 TNU총재, ‘티벳 불교의 여성 수행 전통’을 주제로 강연



불교여성개발원(원장 : 김애주)은 7월 8일 조계종 불교문화역사관에서 티벳 망명정부의 여성 지도자 린첸 칸토 총재를 초청, ‘티벳 불교의 여성 수행 전통’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린첸 칸토 총재는 티벳과 인도의 여성 수행자를 위한 ‘티베트 넌 프로젝트’(Tibetan Nuns Project) 운동을 이끄는 여성 지도자로 티벳 망명정부에서 보건부, 교

육부 장관을 역임했다. 1957년 중국의 티베트 탄압으로, 자주성을 상실한 티벳인들은 현재까지 약 14만명이 전 세계로 망명하기에 이르다. 망명 정부로 찾아오는 비구니 스님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자, 달라이라마는 린첸 칸토 총재에게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중국의 혹독한 탄압을 견디다 못해 히말라야를 넘어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한 비구니 스님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

린첸 칸토 총재는 상처 받은 여성 수행자들에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음식과 거처를 마련해 주는 일을 시작한다. 이것이 오늘날 ‘티베트 넌 프로젝트’(Tibetan Nuns Project) 운동의 시작이다. 한국은 2007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다. 린첸 칸토 총재는 티벳 불교의 여성 수행 전통에 대해 가정

수행은 24시간 내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자신이 있는 자리가 바로 수행처라는 것이다. 특히 여성 불자들은 가정 내에서 어머니로, 아내로 각각의 주어진 역할들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수행의 방편이자 실체라는 것이다. 매일 자신의 자아를 돌아보고, 부정적 감정들을 내려놓으면 좀 더 행복해 지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린첸 칸토 총재는 자신을 자동차에 비유하며, 고장이 나거나 운행에 문제가 있을 때 정비소를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듯이, 수행에 문제가 있을 때 사원을 찾아 스님들과 상의하고 도움을 받는다 했다. 내 몸을 움직이는 운전사는 바로 자신이므로 생활도 수행도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것이 바로 티벳 여성 불자들의 수행이라 전했다. 린첸 칸토 총재의 이번 방한에는 달라이라마의 막내동생이자 나리 린포체인 남편과 동행 했다.

불교문화회관=김종열 기자

### 마니합창단 김양희 군종특별교구 표창 수상

‘군포교지원단’ 설립2주년 기념 법회 봉행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스님)는 7월 17일 육군 제11보급대대 군법당 ‘안국사’에서 ‘군포교지원단’ 설립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설립 2주년을 맞은 군포교지원단은 대불련총동문회 산하단체로 매주 군포교 현장을 방문, 물품 및 포교지원을 계속해 왔다.

군종특별교구장 자광스님은 이날 법어를 통해 “최전방 어디라도 달려와 군포교에 앞장서는 지원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작은 발원들이 모여 국군장병들이 부처

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 초발심을 잃지 말고 군포교에 앞장서 주시기를바랍니다.”라고 말씀 하셨다.

특히 이날 법회에서 불교총지종 서울 마니 합창단 김양희 지휘자가 군포교 지원의 공로를 인정받아 군종특별교구 표창을 받았다.

김양희 지휘자는 지난 15년 동안 매월 군포교 지원에 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 대구 경북 교구 금강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총지종 대구 경북 교구 금강 합창단에서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자비를 실천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모집대상 : 모든 불자
- ◆ 모집시기 : 수 시
- ◆ 연습일시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 연습장소 : 대구 개천사 합창단실
- ◆ 연 락 처 : 최 지 형 단 장  
053)425-7910
- ◆ 지 휘 자 : 배 해 군





날마다 좋은날

# One Story(하나의 이야기)

Simon Park(박지관), 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어린 시절 한국에서 주말의 영화를 기다리며 보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70-80년대 만 해도 주말에 TV에서 외화를 특집으로 많이 보여 주곤 했습니다. 특히 설, 추석 명절에는 각 방송마다 두 세편씩 방영하기도 했지요. 초등학교생이었던 나는 밖에서 뛰어 놀다가도, 영화가 시작될 무렵이면 집으로 쏙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벌써

식구들은 텔레비전 앞에 웅기종기 모여 앉아 영화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도란도란 얘기꽃을 피우던 즐거운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영 되었던 많은 외화들은 미국 영화배우 ‘존웨인’과 지금은 영화감독이 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이었던 서부 영화들로 기억됩니다. 그 영화 속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주인공인 카우보이 또는 보안관은 우리 편 즉 착한 사람으로, 인디언과 сомbrero라 불리는 썬이 넓은 모자를 쓴 백시안들은 모두 악당이고 죽어야 될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과 악, 흑과 백의 논리가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영화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One story (하나의 이야기)에만 노출이 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직접 알아 보려는 노력도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정보를 여과없이 받아 들이며 One story 에만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속으로 미리 단정을 지어 버립니다. 자기가 정해 놓은 가치관과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만나면,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적에 서부 영화를 보고, 카우보이는 착한 편 인디언은 나쁜 편이라고 무의식중에 결정을 했듯이, 아주 빠르게도 좋고 나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봅니다. 그래서 점점 쉽게 사람들을 묶어서 분류를 해버리고, 나중에는 그 분류작업이 자동화가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UN에 온갖 처럼 세계의 많은 인종들이 모여 평화롭게 살고 있는 뉴질랜드에서 정말 다양한 나라와 문화에서 온 사람들의 그들의 ‘다른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 들으며 나의 이야기들도 나누는 열린 교제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열려 있는 마음에만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담긴다는 겁니다. 좋고 나쁘다는 분류보다는 그

저 다르다는 의미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이야기들이 나의 삶을 살찌게 한다는 것 말입니다. 한국을 떠난지 오래된 제 자신이 한국을 방문할 때 마다 느끼는 것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100만 명을 넘어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그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가져오는 그 다양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 줘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제는 단일민족이란 이름으로 One story(하나의 이야기)를 고집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마음을 열어 그들의 다른 이야기들을, 나쁘거나 좋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그 자체로 우리의 열린 마음에 담아줄 때 우리의 삶도 그들의 삶도 풍부해지리라 봅니다. 글을 쓴 박지관 교수는 뉴질랜드에 이민 온지 16년이 되어가며 현재는 수도 웰링턴에서 아내와 8살 딸아이와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 이야기

## 마음의 해탈을 그리며

성화사 김경인 통신문

그칠 줄 모르고 쏟아 붓던 장마도 끝이 났다.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에 햇빛은 쨍쨍, 나들이하기엔 더없이 좋은 날씨다. 방생 잘 다녀오라고 날씨도 돕는다면 보살님들도 환한 얼굴이다. 해탈절을 맞이해서 십진강으로 방생법회를 떠났다. 간식도 나눠 먹고 일상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에 다들 들떠서 수다도 떨고 바깥구경도 하니 어느덧 가슴이 확 트이는 십진강에 도착했다. 울 해에는 미꾸라지를 방생한다. 조그만 좁은 공간에서 서로 뒤엉켜있는 미꾸라지들을 봤다. 이 조그만 비닐 안에 갇혀서 이 녀석들도 자기들만의 세상을 이루며 그들만의 위계질서 속에서 기빠하고 걱정하며 오만가지 감정을 느낄까싶은 의문이 들었다. 하나가 꿈틀거리면 곁에 있는 것도 꿈틀거리고 결국 비닐 전체가 꿈틀거렸다. 마치 분출 직전의 마그마처럼 팽팽하게 세상과 대치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서로에게 얽혀있는 모습을 보니 소리에도 놀라지 말고, 그물에 걸리지도 말고, 진흙탕에 묻지 않게, 무소의 뽕처럼 열린 혼자가 되게 방생하고 싶었다.

폼지락 거리던 미꾸라지를 강물에 푸는 순간 쏙살같이 해엄 쳐 나아갔다. 그동안 좁은 곳에서 얼마나 숨통이 막혔을까? 강물에 몸을 맡기고 유유히 꼬리 흔들며 제 2의 삶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속이 후련하면서 몸이 가벼워진다. 자유의 몸이 된 미꾸라지들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났다. 7월 15일 우란분절. 목련존자가 아귀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과 대덕승들에게 백미와 다섯 가지 과일을 정성들여 공양하고 간절하게 서원 하셨단다. 상, 하반기 불공을 시작하면서 정사님께서 항

상 말씀하시기를 진실 되게, 진실로 식(識)과의 대화를 통해서 참회하고 해탈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다. 얼마 전 6.25때 나라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을 기리는 불공을 했다.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20세의 많은 피끓는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되었다. 지금 생존해 있다면 약 80세가 되었겠지만, 피어 보지도 못하고 전장에서 맞은 죽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을까? 부디 다음 생애는 멋진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불공하였다. 순간 눈앞에 20대의 청년이 너무 좋아하면서 환한 모습으로 보일 때 더욱 진지하게 불공하게 되었다. 이처럼 식(識)의 마음을 알아줄 때 내가 그 마음이 되었을 때 정견(正見)으로서 그 아픔을 보듬어 주고 위로해 줄때 망(亡)자의 한이 줄어드는 게 아닐까? 방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상, 하반기 불공기간의 노고와 회향하였다는 마음에서 다들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그 와중에 어느 보살님이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얀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야야! 내 평생 문밖 세상을 모르고 살았는데 오늘 너 덕분에 산천초목 구경 잘하고 맛있는 음식 잘 먹고 좋은 구경 많이 해서 고맙다"라고 말을 하고는 가셨단다. 우리가 먹은 점심이 바로 공양이 되었고 차 안에서 까지도 좋은 구경거리가 되었다 보다. 방생법회는 단순히 물고기 몇 마리 살려주는 것만이 아니다. 진실 되게, 진지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7세(世) 선망부모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혼까지도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모든 보살님께서도 올해 방생회향 잘 하고 성불하시길 바란다.



생활상식

▶ 전자레인지의 묵은 냄새를 제거하려면 전자레인지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얼룩이 생기고 묵은 냄새가 나게 된다. 얼룩은 세제로 닦아내면 없어지지만,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풀이나 오렌지의 껍질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1~2분 정도 가열하면 묵은 냄새가 없어지고 오렌지 향이 은은하게 난다.

▶ 은제품의 얼룩이나 때를 없애려면 목걸이나 반지 혹은 식기등의 은제품은 닦지 않고 방치해 두면 오염이 되기 쉽다. 은제품을 세정하기 위해서는 용기에 물을 넣고 베이킹 파우더를 조금 섞은 다음 그 용액 속에 은제품을 담아서 끓이면 놀랄만큼 깨끗해 진다.

▶ 유리 그릇의 상표 스티커를 제거하려면 유리컵이나 그릇에 붙어 있는 상표나 정가표 등은 사용한 접착제로 인하여 솔로 문지르거나 물로 씻어도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 잘못하면 새 그릇에 흠이 생길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 이런 경우에는 헤어 드라이어의 더운 공기를 부착된 부위에 10여 초 불어주면 어렵지 않게 떼어 낼 수 있다. 남

은 얼룩은신너나 아세톤으로 지우면 깨끗이 제거 된다.

▶ 액자나 고가구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세정하려면 금, 은박으로 제작된 액자나 고가구의 울퉁불퉁한 조각 부분은 오래 사용하면 먼지가 끼인다. 이러한 오염된 것을 물로 닦아 내면 물의 얼룩으로 더 지저분해 질 수 있으므로 양파를 삶은 물을 부드러운 면이나 용에 적셔서 닦아 내면 효과적으로 세정할 수 있다.

▶ 옷장 속 방충제는 어디에 비치하는 것이 좋은지 보통의 방충제는 승화 가스가 발생하여 섬유와 옷감에 작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가스는 공기보다 더 무거워 발생하면서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방충제는 옷장의 아래에 두는 것 보다는 위에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 자동차의 배터리에 녹이 슬었으면 배터리 케이블에 콜라를 부으면, 거품을 내면서 녹이 없어진다.

▶ 녹이 슬어 빠지지 않는 볼트가 있으면 콜라를 바르면 수 분 후면 그 볼트가 빠진다.

진언행자의 편지

## 연꽃을 보면 떠오르는 스승님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스승님이 계십니다. 지성 통리 원장님과 승효재 전수님이십니다. 연꽃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피어나는 이 계절이 되면 더욱 생각이 나며 계절 때에 존경스러웠던 모습들이 샘물처럼 솟아옵니다. 예쁜 꽃들을 피우고 보살피셨던 스승님들, 가을이면 겨울나기 준비를 하여 지하실에 잘 보관하시고 봄이면 무거운 화분들을 모두 들어 내놓다가 정사님 허리를 다쳐 고생도 엄청 하셨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또한 승효재 전수님은 우리에게 아픈 일들이 닥쳐오면 따뜻한 가슴과 눈물로 보듬어 안아, 모두에게 편안하고 정이 넘쳐흐르는 전수님의 따뜻한 배려는, 우리들 모두의 가슴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지요. 우리들뿐이 아니라 꽃과 화분에도 사랑과 정성을 듬뿍 주어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온 정성을 쏟아 부우시던 모습. 무더운 여름날에도 매일 연꽃잎을 정리하시면서 예쁜 잎을 나올 수 있도록 공드림을 하셨습니다. 물주기를 하시는 스승님의 얼굴에 구슬땀이 흘러내리며 힘드셔도 힘들다는

말씀 한 번도 하신 적 없었지요. 사랑을 준 연꽃잎들은 연두 빛, 핑크빛과 노란색으로 예쁘게 뽀내고 피울 즈음이면 스승님께서는 연꽃 축제를 준비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에서 먼 이웃까지 알리고 꽃구경 오는 손님들께 열심히 교화발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생활하셨던 스승님 두 분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희도 오시는 손님들께 손님맞이 준비를 하며 보냈던 날들을 떠올려 봅니다. 지난날 스승님과의 생활이 해마다 연꽃 피는 계절이 되면 지금은 추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시며 보람을 느끼시는 스승님을 뵈올 때, 스승님들은 다 그렇게 헌신적인 생활을 하시나 생각하게 되었구요. 유난히 부지런하시고 정이 많고 항상 배부시며, 헌신적으로 교화발전과 교도들에게도 온 힘을 다해 생활하셨던 두 분 스승님 있었기에 올해에도 연꽃을 보며 스승님에 대한 존경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남기고 가신 흔적은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분 스승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대전 만보사 유복근 통신문



불교상식

## 총지종의 교리요강

1.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하고
2. 관세음보살의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과 준제법으로 수행하며
3. 삼밀유가관행법(三密瑜伽觀行法)을 실천함으로써 [중생의 신(身)·구(口)·의(意) 삼업이 본래

부처님의 삼밀과 차별이 없음을 알고, 실천적 수행방법으로 손으로 결인을 하고, 입으로 진언을 외우며, 뜻으로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알아서 衆生과 佛은 본성이 같다고 관(觀)하는 수행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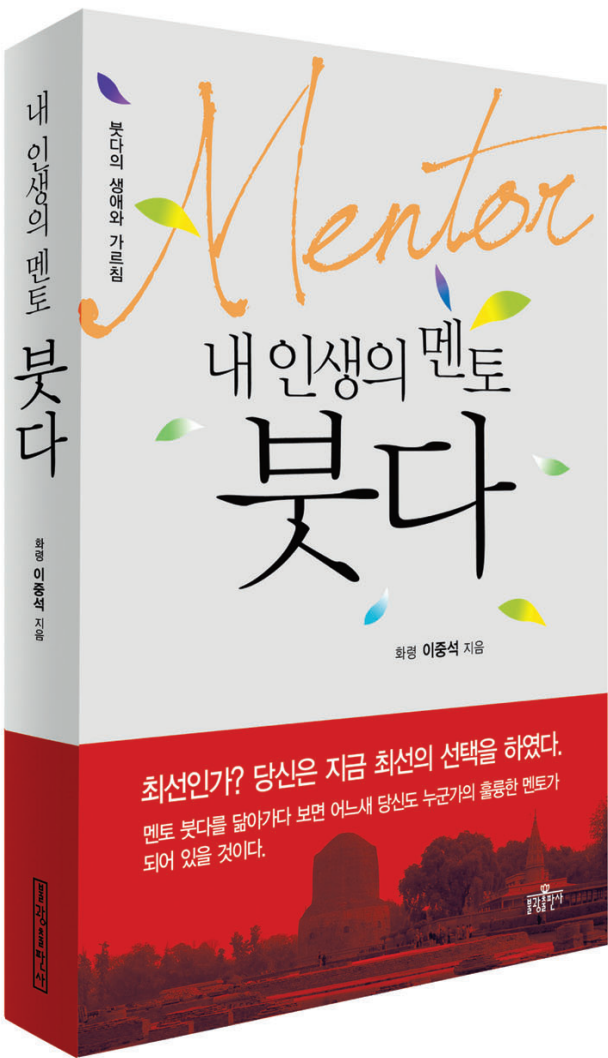
4. 즉신성불을 궁극의 목적으로 합니다.

고려 대장경 천년의 해, 한국인이자라면 반드시 불교를 알아야 한다.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 최선인가?

당신은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 삶을 변화시키는 인류의 영원한 스승 붓다와 만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들 곁에는 붓다가 있었다. 당신도 붓다를 닮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훌륭한 멘토,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될 것이다.



화령 이중석 지음  
432면 | 18,000원

# 내 인생의 멘토 붓다



규제와 편견의 한계를 넘어 선 여성들

김만덕(1739~1812)

김만덕은 조선 후기 제주도에 살았던 여성 사업가로 제주 특산품을 취급하는 무역업을 하여 큰부자가 되었다.

제주도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자 그는 자신의 장사밑천과 여윳돈까지 다 털어 백성들을 살려냈다. 사업가로서 여성 CEO로서 뛰어난 인물이며 가진 자의 의무를 실천할 줄 아는 부자였다.

김만덕은 영조 15년 제주 현 에서 양인 아버지 김응열과 어머니 고씨 사이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그가 12살 되던 해 전국을 휩쓴 전염병으로 부모가 죽어 하루 아침에 고아가 되었다. 그는 어느 기생의 양녀로 들어간 후 제주에서 유명한 기생이 되었다.

만덕은 스스로 기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스물 세 살이 되던 해 만덕은 제주목사를 직접 찾아가 설득해서 원래 자신의 신분인 양인의 지위를 되찾았다. 대부분의 기생들이 어느 남성의 첩이 되어 기생 신분을 벗어나려 했던 것과는 다르게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신분을 바꾼 것이다. 남성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사는 대신 자신이 경제적 기반을 확실히 마련해 자립하는 각주인의 삶을 택했다.

양인의 신분을 회복한 김만덕은 혼자 살았다. 조선시대에는 노비나 기녀, 과부가 아닌데 혼자 사는 여성은 극히 드물었다. 만덕은 자기 의지대로 혼자 많은 삶을 택했다.

만덕은 집안살림 대신 장사를 시작하고 객주를 운영했다. 녹용, 꿀, 미역, 전복 등 제주 특산품과 제주에서 필요한 물건의 수요를 잘 하여려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는 일종의 무역업을 했는데 사업수완이 뛰어났다. 비싼 물건과 싼 물건을 쌓아두거나 팔거나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동안 재산은 날로 늘어갔다. 그는 관가의 물품도 조달하고 여객주인이나 포구주인권을 획득하여 상당한 사업가로 성공했다.

김만덕이 유명해진 것은 단지 부자이기 때문은 아니었다. 제주에는 계속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 1794년 거대한 태풍이 제주를 휩쓸었다. 산더미 같은 해일이 해안 인근 밭들을 덮쳐서 공들여 키운 곡식이 바닷물에 잠겨 버렸다. 이 태풍은 조정에서 보낸 곡물 1만1천석을 실은 배마저도 삼켜버렸다. 제주가 죽음의 땅으로 변해갈 즈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털어 쌀 수송선과 뱃길에 익숙한 노련한 사공들

을 구해 쌀 오백여 섬을 무사히 제주에 도착하게 하였다. 만덕은 그 중 오십 섬으로 친족들을 살리고 나머지는 모두 관아에 운반해서 죽기 일보 직전의 백성들을 살렸다. 크게 벌여 크게 쓴 여성, 만덕은 진정한 ‘큰 손’ 이었다.

김만덕의 선행을 전해 들은 정조는 만덕을 만나보고 싶었다. “어떻게 양반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제주도 아낙이 이런 기록하고 큰 일을 자원해서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만덕에게 소원을 물어 상을 내리라고 명했다. 만덕의 소원은 임금님이 계신 서울에 올라가 보는 것과 금강산에 가서 일만 이천 봉우리를 보는 것이었다.

제주 여성은 육지 구경을 할 수 없도록 국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만덕의 소원은 임금님의 어명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만덕이 원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미지의 세상이었다.

정조는 여성으로 최고의 벼슬인 의녀반수(궁중 최고 여의사)를 제수하고 만덕의 소원을 가까이 들어 주었다. 제주도에서 한양으로,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관공서가 만덕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 만덕이 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몰려나왔다. 여성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였고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가는 용기 있는 만덕을 칭송하였다.

만덕은 유명 인사가 되었다. 육십이 넘은 나이에 금강산을 유람했고 천하의 기이한 경치를 다 본 후에 서울로 돌아왔다.

김만덕은 여성의 사회활동이 드물었던 조선 후기에 신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활동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 여성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상업의 원리를 잘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거상으로 성공했다는 것이다. 현대에도 김만덕의 업적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떠나 굶주리는 지역민들을 위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자진해서 헌납했다는 사실이다.

현재 김만덕은 ‘제주의 할머니’로 칭송 받고 있다. 전 생애 동안 누구도 하기 힘든 선택과 결단을 했고 당당하고 독립적인 하층여성 김만덕은 살아서 공적인 명예를 획득한 몇 안되는 여성이었다.

현재 제주도 내의 초, 중학교 교실 향토 학습관의 ‘내 고장을 빛낸 인물’에 어김없이 첫머리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자료~여성사전시판)

불교설화 <58>

<내소사 대웅전>

사내는 그날 하루를 쉬고 다음날부터 일을 시작했다. 대웅전 지을 나무를 베어왔다. 기둥과 서까래 대들보 감을 구해 왔다. 나무 구입이 끝나자 그는 목침만한 크기로 나무를 잘랐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는 목침만을 잘랐다. 열흘이 가고 스무 날이 가고 한 달이 가도 그는 목침만을 잘랐다.

선우화상은 사내가 미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청문대사는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사내는 표정 하나 없었다. 그는 다섯 달 동안 목침을 잘라 냈다. 다섯 달이 지나자 그때에야 비로소 톱을 놓고 대패를 들었다. 목수는 끊임없이 대패질을 했다. 그는 삼매에 들어있는 수도승보다도 더 엄숙했다. 부처님이 삼매에 들어있는 모습이 바로 저 목수와 같을 것이라 여겨졌다. 그는 몸을 움직여 대패질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참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법당을 짓겠다는 생각도, 나무를 다듬는다는 생각조차 초월한 것 같았다. 물이 물레방아를 돌린다는 생각도 자신이 흐르고 있다는 생각도 없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처럼 목수도 그럴 것이라 선우화상은 생각했다. 목침을 다듬기 3년이였다. 선

“큰스님! 아무래도 저는 법당을 지을 인연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내소사에 온 지 3년이 넘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선우화상은 그가 병어리가 아니었음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그의 엄청난 인내력에 선우화상은 혀를 내둘렀다. 선우화상은 목수가 청문대사에게 한 말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었다. 청문대사가 물었다.

“왜, 무슨 일이 있소?”

“네, 목침 하나가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아직 저의 정성이 완전히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림.”

선우화상은 깜짝 놀랐다. 예상한 일이었지만 하나가 모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왜냐하면 수천 개의 목침 중에서 한 개가 없어진 것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매일같이 목침



▲ 내소사 영산회괘불탱화(보물 제1268호). 1700년(숙종 26년) 제작, 크기 9.95m×9.13m.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불퇴전의 각오로  
세세생생 법연으로 이어진 법당이 지어진다”

우화상은 참다못해 한마디 했다.

“여보, 목수 양반! 목침 깎다가 세월만 다 가겠소. 법당은 언제 지으시려요?”

선우의 물음에도 목수는 빙그레 웃을 뿐 말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목침 다듬는 일에 열중했다. 선우화상은 자기가 한 말에 대답이 없자 공연히 자존심이 상했다. 목수를 골려 주고 싶었다. 그는 목침 한 개를 슬쩍 감추어 버렸다. 수천 개의 목침 가운데 한 개 정도 감춘다고 알리 있겠느냐는 생각이었다. 엄청나게 작은 목침을 다 세고 나서 목수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일할 때와 달리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깃들어 있었다. 연장을 다 쟁기고 나서 땀을 닦은 목수는 청문대사를 찾아갔다.

을 점검했다면 또 모르되 목침을 자르기 시작하면서 다 다듬을 때까지 적어도 선우화상이 알고 있는 한, 한 번도 점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까닭이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그 목침을 자신이 몰래 숨겼다고 토로할 용기도 나지 않았다. 청문대사가 손을 들면서 말했다.

“가지 말고 법당을 그냥 짓도록 하시오. 목침이 한 개 모자라는 것은 그 애의 잘못이 아니요.”

선우화상은 쓰윽했다. 청문대사가 이미 자기가 목침 한 개를 숨기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청문대사도 목수도 보통 인간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청문대사의 위로를 받은 목수는 다음날부터 법당을 짓기 시작했다.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웠다. 중방과 도리를

얹고 대들보를 얹었다. 서까래를 놓았다.

그가 3년 남짓 자르고 깎은 목침도 모두 쓰였다. 법당은 며칠 내에 완성되었다. 기와도 얹었고 문도 달았다. 담집을 잇고 탁자를 만들어 내부 공간도 모두 완성하였다. 법당

설마 새로 짓는 법당 안에 번기를 들여 놓지는 않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리적 욕구를 어떻게 충족하고 배설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선우화상은 그게 궁금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법당 앞에는 늘 사람이 지키고 있었다. 청문대사가 아니면 그 목수였다. 선우는 어떻게든 자신이 생각한 것은 꼭 이루고야 마는 고집이 있었다. 법당 앞에 목수가 지키고 있었고 청문대사는 조실에서 교대할 때까지 쉬고 있었다. 선우화상은 피를 냈다.

“음!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군.” 선우화상은 목수에게 다가가 말했다.

“조실 청문 큰스님께서 잠깐 오라합니다.”

목수는 고개를 가웃하더니 법당을 떠났다. 선우화상은 재빨리 법당 앞으로 다가가 문틈으로 내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아무리 봐도 벽화를 그리는 화공은 없었다. 그 대신 오색이 영롱한 한 마리의 새가 부리에 붓을 물고 물감을 묻혀 단청과 벽화를 그리고 있었다. 호기심이란 본디 멈추기를 거부하는 법이다.

선우화상은 법당 문고리를 잡고 살그머니 당겼다. 법당은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법당 안으로 한 발을 살짝 들여놓았다. 바로 그 때였다. 온 산천을 뒤 흔들듯 한 호랑이의 으름 거림이 있었다. 선우는 그 자리에 기절해 쓰러졌고 새는 날아가 버렸다. 선우화상이 정신이 들었을 때, 청문대사가 법당 앞에 죽어 있는 회고 큰 호랑이를 향해 법문을 설하고 있었다.

“대호선사여, 나고 죽음이 본래 둘이 아닌 법인데 선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태어남이란 맑은 하늘에 한 점 구름이 생기는 것과 같고, 죽음이란 그 구름이 맑은 하늘로부터 사라짐과 같도다. 그러나 흰 구름 자체도 본래실체가 없는 법, 나고 죽음도 실체가 없다. 하지만 그대가 지니고 있던 그 영묘한 본성만큼은 영원히 나고 죽음을 따르지 않고 홀로 빛나리라. 대호선사여! 그리고 그대가 세운 이 대웅보전은 길이 법연을 이으리라.”

법당 중수가 끝나자 청문대사는 온 데 간 데 없이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다.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총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교 훈 신 의  
성 실  
정 직  
교 목 보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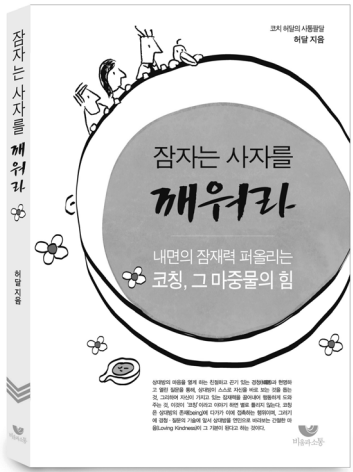
총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교무실 : 051-555-4458 / 행정실 : 051-556-0281 / 교장실 : 051-552-0011





상대를 일깨우는 기술 ‘코칭’을 말한다  
‘잠자는 사자를 깨워라’  
비움과 소통 간, 허달 지음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는 친절하고 끈기있게 경청(傾聽)하는 법. 현명하고 열린 질문을 통해, 상대에게로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행동하게 도와주는 것을 ‘코칭(Coaching)’이라고 말한다. 코칭

은 상대방의 존재에 다가가 접촉하는 행위이다. 그러기에 경청·질문의 기술에 앞서 상대방을 연민으로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이 그 기본이 된다.

코칭이란 자기의 지식이나 의도를 고객에게 주입하겠다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로는 성공할 수 없다. 상대의 열정을 유발하여 스스로 해법을 찾아내고 실행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과업을 완수토록 도와주는 일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경영자들이 자주 강조하는 “절대로 부하에게는 정답을 주지 말라”는 수칙 같은 것이, 알게 모르게 코칭의 한 기법을 응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요즘 유행하는 ‘멘토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코칭’의 진수를 대기업 CEO 출신의 기업전문코치가 《잠자는 사자를 깨워라》란 제목으로 한권의 책으로 묶었다. 저자 허 달씨는 독자들에게 리더십과 코칭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했다. 코치의 마음가짐, 코칭의 기술적 측면, 코칭의 작동기제를 소개하고, 그 동안 경험한 기업 경영과 코칭의 실제 사례와 연결하여 소개한 점이 특징이다. 이 책은 하나의 지식이 문제 해결의 도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는 지혜로 발전할 수는 ‘위기지학(爲己之學)’ 매뉴얼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코칭 하고자 하는 상대의 사정을 인정하고 칭찬을 선행시키라고 한다. 아이들이나 부하를 꾸짖는 경우에도 이를 늘 상기하면 효과성이 높아진다. 한 마디로 아이들이나 부하를 개선시키려면 목적과 조금이라도 다른 의도가 섞인 꾸짖기를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 코칭의 기법을 알게 된다면 누구나 코치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자기 스스로의 스승도 될 수 있다. 코칭이란 경청과 질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것이기에 자기 스스로가 답을 찾았으므로 그 해결 방안은 오래 지속되고 행동력도 외부로부터 주어진 해답에 비해 월등히 높을 것이라 한다. 또한 저자는 코칭이란 우물의 펌프를 작동시켜기 위한 ‘마중물’ 한바가지라 했다. 지하수가 아무리 풍부해도 한 바가지 ‘마중물’이 없으면 물을 올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코칭을 인간 내면의 잠재력을 펴 올리기 위한 마중물로 표현한 것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타인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경청과 질문이란 마중물을 적절하게 활용할 계기를 얻는 동시에,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내면에 잠자는 사자를 일깨우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인가? 종교편향의 시초인가?’  
‘불교와 대통령 이승만’을 주제로 종교편향에 관한 토론회 열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는 7월 18일 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교와 대통령 이승만’을 주제로 제6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는 8.15 광복절을 즈음하여 공영방송 KBS는 다큐멘터리 ‘이승만 대통령’ 5부작을 방영 할 예정이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평가와 재조명의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불교계는 어떤 시각으로 대통령 이승만을 평가 할 것인가를 토론하는 자리였다. 불교사회연구소 소장 법안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공과를 분석 평가해 불교사적 입장에서 정리를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자로는 이재현박사(서울대 종교학과 강사)가 ‘불교와 대통령 이승만’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지정토론에는 김종인박사(불교총지중 밀교연구소 연구원), 이주영(건국대 명예교수, 뉴데일리 이승만연구소 공동대표), 홍사경(불교평론 주간),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등 4명이 패널로 나섰다.

발제자 이재현박사는 『미군정의 종교 정책과 한국불교, 이승만의 종교관과 종교 정책, 불교정화와 이승만 대통령, 불교 정화의 교훈: 국가와의 관계 모색 등 4개의 소 주제로 발표하였다. 해방 후 미군정은 자신들의 점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독교, 특히 개신교 세력을 의도적으로 육성한다. 이승만은 자신의 종교인 개신교를 통해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 미국의 의도와 자신의 생각이 맞아떨어지자 이승만은 제한의회 헌서문, 정.부통령 취임식에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문구를 등장 시킨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정의 종교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형목(교도소 목사)제도, 국영방송인 서울 중앙방송을 통한 선교

방송, 일요일의 공휴일화, 군종제도 도입, 경찰 선교, YMCA같은 기독교 단체 후원 등 권력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했다. 이러한 편향적 지원은 해방 당시 남한 인구의 2-3%에 불과하던 기독교 인구가 1960년에는 7.5%에 달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한다. 이승만 정권에 일어난 ‘불교정화’는 한국불교에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던져주고 얻은 것만큼이나 잃은 것도 많은 뼈아픈 역사다. 식민지 불교의 잔재인 대처승이 배제되고 비구승 중심의 불교 전통은 회복된다. 그러나 이념과 명분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진행과정과 방법상의 문제로 오늘날까지도 그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해방 이후 불교계 내부에서 일어났던 교단개혁의 움직임은 여러 이유로 실패한다. 1954년 이승만은 “불교의 교단과 사찰은 독신 비구승이 담당하여 운영을 하고, 대처승은 사찰 밖으로 나가라.”는 요지의 유시를 발표한다. 비구승들은 이승만의 유시를 계기로 공권력을 등에 업고 정화운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대처승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자, 비구승들은 또 다시 이승만 유시문 발표를 건의 하였고, 총 8차례나 발표하여 공권력을 지원 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비구승단 지원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아래 이루어진 행위였다. 해방초기 대처 중심의 불교계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이승만은 한국 전쟁 후 제3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와 사사오입 개헌 파동으로 야기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술로 단행한 조치로 보인다.

불교정화를 지원하는 모습으로 교단내의 분열을 조장, 여론 무마용으로 불교를 이용했던 것이다. 또한 불교계는 내부 분열과 갈등 해소를 국가 권력에 의지해 정체성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정화를 통해 불교 내부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왜색을 버리고 한국 불교전통을 회복한다는 대의명분은 있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조계종단이 성립되었다.

불교는 종교로서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실천하는 집단이다. 세상의 삶과 떨어질 수 없기에 세속을 통치하는 국가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종교가 국가의 상위에 서기도 하

고, 종교가 국가권력에 종속되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정교분리 및 다원주의 시대에 종교는 국가에 대해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 불교는 국가불교의 성격을 과감히 깨고, 원래의 부처님 정신으로 돌아가 종교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을 회복해야 한다. 불교가 불교답게 바로 세워져야 한국 사회 내에 그 정체성과 자주성을 확보 할 것이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지정토론에 나선 이주영 대표(건국대 명예교수, 뉴데일리 이승만연구소 공동대표)는 『이승만의 불교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호의적이었다. 그가 쓴 비망록(Rough Sketch)에서 어린 시절 어머니가 매년 생일 때마다 절간(문수사, 미타사)으로 보내 공양을 드리게 한 장면과, 농지개혁으로 사찰의 전답이 몰수되자 국무회의 유시를 통해 다시 대부분을 반환했다는 기록을 들어 이승만의 불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불교총지중 밀교연구원 김종인 박사는 『1948년 정부 수립이후 10명의 대통령이 한국사회를 통치하였다. 그 중 3명이 기독교 장로인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 대통령이다. 한국은 헌법상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대통령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편향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종교는 그 종교를 믿는 이의 의식 일반을 지배하고, 인간관계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제기되어 온 소망교회 인맥은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해준다. 나머지 두 장로 대통령도 이러한 종교적 신념과 교회 인맥에 기인하는 종교 편향의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세 명의 대통령 중, 재임 시 종교 편향이 가장 크게 부각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김영삼 대통령도 재임시 절 문제가 재기되기도 했으나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도 재임 당시에는 종교 편향이 지적되지 않았다. 이승만의 경우와 김영삼의 경우는 다르다. 그것은 이



발제자 이재현 박사

승만의 종교적 편향성이 이명박 대통령보다 덜하기 때문이 아니다. 세 명의 장로 대통령 중에서 종교적 편향성이 정치에 영향을 미친 강도가 가장 큰 것은 이명박이 아니라 이승만이다. 이재현 박사의 논문은 이승만 정권의 종교편향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간 불교계에서 종교 편향 문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2000년대에 들어 개신교인들의 편향한 태도가 한국사회에 큰 문제로 떠오른다. 물론 2000년대 이전에도 개신교의 편향성과 배타성은 있어 왔지만, 그다지 노골적인 사회문제는 아니었다. 그 이유는 이전까지 불교인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 그 결과 불교계는 사회적 식물인간 상태에 머무른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불교계가 사회적 자각과 역할에 대한 의식들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비이성적인 개신교인들은 그들의 권력과 위상을 지키기 위해, 이승만 정권처럼 기독교 편향이 일어나더라도 불교를 포함한 여타 종교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불교는 더 이상 움츠러 들지 않았다. 일부 개신교의 비이성적 공격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의식을 확립한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전 영역에 기독교 편향이 존재한다. 잘못된 편향의 뿌리는 바로 이승만으로부터 시작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불교계와 학계는 제대로 된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정황을 밝혀내고,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종교 간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는 이번 토론회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종교 편향의 뿌리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하기위한 작업을 진행한다. 오는 8월 15일 공영방송 KBS를 통해 방송될 예정인 다큐멘터리 ‘이승만 대통령’을 볼자들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얼마나 진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잘못된 점은 다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불교역사문화기념관 = 김종열 기자



토론자 김종인 박사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바라밀지역아동센터

바라밀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을 통합적으로 보호하여 질 높은 복지와 교육의 장으로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이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아동, 차상위계층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일반가정

●프로그램

- 보호프로그램 : 방임아동보호, 생활지도, 위생지도, 급식지도
- 교육프로그램 : 학습(국어, 영어, 수학, 독서지도, 기초학습지도)
- 문화프로그램 : 캠프활동, 현장학습 및 문화 활동(영화, 연극, 뮤지컬)
- 복지프로그램 : 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 지역사회연계 : 결연후원, 지역 내 인적·물적 지원연결

●따뜻한 후원의 손길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학습지원비 및 문화활동(견학 및 캠프)을 위한 후원을 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바라밀지역아동센터의 후원자가 되시면 후원금에 대한 세금감면 및 연말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계좌 : 기업은행 094-059285-04-046 예금주 : 바라밀지역아동센터
- 후원문의 :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김수정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2동 8-8 정각사 내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전화 : 051)552-0705  
팩스 : 051)552-0704



풍경소리

이 생각이 없으면



이것이 나라고 하는 한 생각 없으면  
이것이 내가 아니어서 생기는  
그 고통도 없지요

사랑받아야 한다는 그 생각이없으면  
사랑받지 못해 생기는 그 아픔도 없지요

당신이 날 사랑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없으면  
당신에 대한 내 원망도 없지요

나라는 한 생각  
지어낸 그 한생각에 매달려 울고 웃습니다.

창공에 걸린 달은 홀로 저리 밝는데  
천개의 강에 비친 천개의 달 그림자  
물결 따라 출렁입니다.

이병철/시인

탐욕의 끝은 어디인가?

어느날,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를 불러  
소원을 물었다.  
“저에게 조그만 땅을 주시면 그곳에 집을 짓  
고 싶습니다.”  
왕은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집의 크기를 알 수 없으니, 해가 지기 전까  
지 그대가 뛰어간 만큼의 땅을 주겠다.”  
장수는 궁궐을 나오자마자 뛰기 시작했다.  
해가 누엠투엠투 기울자 더이상 뛸 수가 없었  
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몸은 만신  
창이가 되었고, 그의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  
왔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에 들고 있던 지팡  
이를 앞으로 내던지며 외쳤다.  
“저 지팡이가 떨어진 데까지 내 땅이다.”  
그러면서 그는 곧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은 쓰게 입맛을 다시며 말  
했다.



“쫄쫄, 결국 한 평 땅에 묻힐거면서.....”  
이용범/소설가

이달의 사진

갈매기의 서원



울릉도 = 김종열 기자

**VISUAL**  
**불교총전**

제26화

수행자의 경우

<http://www.drawing라울라.kr>  
글.그림/정수일

수행자들 중에도 내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

흐뭇!  
내 돈.

용돈을 안 쓰고  
모았더니 꽤  
되는군.

착하지 못한 것은  
반드시 후회한다.

아들이 보내준  
용돈을 모았더니  
꽤 되는군.

수행자들 중에도 가끔 계를  
어겨 부처님 법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승적도  
없는 가짜인  
경우가 많지만.....

웃기지마!  
니가  
돈 대했냐?  
노력은 성공의  
엄마라더라.

이 번이 마지막!  
한 판 크게!

수행자로서 잘못된 일을 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한 병  
쯤이야!

옛 도인들의  
홍내를.....!

울며 호소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 놔!

아이고~  
내 돈! 내 재산!  
반 만이라도  
돌려줘요.

수행자도 역시 공부하는  
사람이다. 어찌 잘못이  
없겠나.

엄마! 엄마!  
스님이 담벼락에  
오줌을 똥어.

휴~ 내 아들이  
보내준 용돈과  
내 전 재산을  
다 털렸구나.

흐~음!  
갑자기  
가슴이.

하지만 그런 핑계에  
안주해선  
안 된다.

나는 수행자!  
목숨을 걸고  
깨우침을 향해  
정진하자.

핑계

간만에  
아무개씨는  
실절다미로  
세상을  
뒀습니다.

건강 뉴스

모든 것들을  
걱정해뒀을.  
자신조차 제 것이  
못되는데 어찌  
아들이나 재산이  
그의 것이 되랴.

내용참조: “불교총전” 173P 참조

# 전남영광 특별한 굴비의 맛 청수굴비



영광굴비의 유래

굴비(屈非)? 물고기 이름치고는 참 독특한 이름이죠.  
이러한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데요.  
고려 16대 예종 때 이자겸은 그의 딸 순덕을 비(妃)로 들여서  
그 소생인 인종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지요.  
또한, 인종에게도 셋째딸과 넷째딸을 시집보내, 중복되는 인척관  
계를 맺고 이를 업고 권세를 독차지 하며 은근히 왕이 되려는 야  
심을 품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 뒤 최사전이 이자겸 일당인 척준경을 매수하여 체포  
한 후, 영광 법성포로 유배시켰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 지역 특산물인 굴비를 먹게 되었고,  
마침내 왕에게 칠산바다에서 잡은 조기를 소금에 절여서 진상하  
면서, 결코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한 아부가 아니고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굴비라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계좌번호 (예금주 : 김장호)  
농 협 : 643045-52-114021  
광주은행 : 721-121-012900

제품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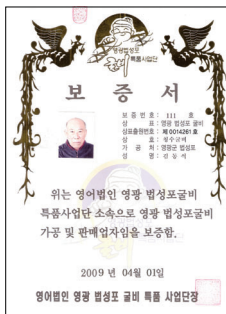
|       |                            |
|-------|----------------------------|
| 청수 1호 | 1.3kg / 20마리 / 12,000원     |
| 청수 2호 | 1.6kg / 20마리 / 25,000원     |
| 청수 3호 | 1.8kg / 20마리 / 35,000원     |
| 청수 4호 | 2.0kg / 20마리 / 60,000원     |
| 청수 5호 | 2.2kg / 20마리 / 80,000원     |
| 청수 6호 | 2.4kg / 20마리 / 100,000원    |
| 청수11호 | 1.2kg / 10마리(大) / 60,000원  |
| 청수12호 | 1.3kg / 10마리(大) / 80,000원  |
| 청수13호 | 1.4kg / 10마리(大) / 100,000원 |
| 청수14호 | 1.5kg / 10마리(大) / 150,000원 |
| 청수15호 | 1.7kg / 10마리(大) / 200,000원 |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두드름 이상 주문 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청수4호부터 청수15호까지는 저희가 택배  
부담합니다.

• 제품설명  
참조기만을 엄선하여 1년 이상 간수가 빠  
진 천일염을 사용하여 염장하여 엮어서 깨  
끗한 물로 세척하여 법성포 해풍에 말린  
후 가장 맛있는 상태에서 냉동시킨 제품  
입니다.  
습도가 5% 이하로 낮아지는 낮에는 해풍  
으로 건조되고 습도가 95% 이상 올라가는  
밤에는 참조기 속속들이 들어있는 수분이  
밖으로 뿜어져 나와 육질이 숙성되는 영광  
굴비는 칠산바다에 접한 법성포의 기후적 여건이 만들어낸 작품입  
니다. 제품에 물기가 흐르는 것은 급속 냉동시킨 제품이 배송시 조  
금 녹아서 묻어 있는 것입니다. 제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보관방법  
서늘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 걸어두면 변질되지 않지  
만 오래두면 배에서 기름기가 배어나와 맛이 변하므로 가끔씩 녹지  
않은 상태에서 끈을 제거하고 랩으로 2~4마리씩 사서 냉동 보관하  
다가 1봉씩 꺼내드시면 변질되지 않으며 본래의 맛이 오래도록 유  
지 됩니다.

• 요리방법  
생선 굵은 그릴에 중간불에 서서히 구워야 제 맛이 납니다.  
갖은 양념을 바른 후 찌거나, 매운탕을 하셔도 맛있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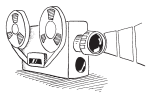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대덕리 564-4  
사업자 등록 번호 : 410-97-06370 · 대표자 : 김동식  
상담 및 문의 TEL : 061-356-2466 FAX : 061-356-2468 H P : 010-5325-8824

※ 제조된 청수굴비는 영어법인 영광굴비 특품사업단 회원업체입니다.  
신선한 제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포장상태는 조금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청수굴비는 법수원 기로스승의 자제 이은주 보살이 운영합니다





영화에서 불교보기 ⑪ / 압바스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체리향기>

달콤한 오디를 통해 삶의 기쁨을 찾다

이란 최대 관광도시인 이스파한에는 자안테 강이 도시를 관통하며 흐릅니다. 수량이 많지 않은 강이지만 이 강 위에는 무려 11개의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다리들도 그냥 다리가 아니라 예술 작품이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차가 지나다니는 그런 다리가 아닌 것이지요. 이 다리들은 만남과 사색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스파한 시민들은 노을이 내리는 시간이면 다리계로 몰려나와 자안테 강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했습니다. 연인이나 가족끼리 나와서 차를 마시거나 수다를 떠는 사람들도 보였지만 많은 여자와 남자들은 홀로 서서 오랜 지 빛 하늘에 넋을 빼앗기고 있었습니

다. 오랜지 빛 강 위로 겨울새가 줄을 지으며 날아올랐습니다. 역동적인 장면임에도 한순간 정적을 느끼게 할 만큼 고요한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왜 고요하다고 하나면, 아름다운 풍경에 몰입한 이 순간만큼은 일체의 생각이 잠시 쉬고, 분주한 일체의 감정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몰입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파한 시민들은 이런 순간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순간을 삼매라고 합니다. 삼매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경지일 것입니다. 삼매는 열법이나 참선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좋아하는 일에서도 삼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란 인들은 이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 삼매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화 <체리향기>는 이란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에는 노을 지는 풍경 앞에서 삼매에 드는 이란인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영화는 꾸준히 일



상 속의 삼매를 추구합니다. 일상의 삼매를 통해서 삶의 행복을 찾으라고 조언해줍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삼매'라는 표현이 아니라 삶의 기쁨을 찾으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라는 게, 달밤의 고요를 경험한다거나 새벽에 장엄하게 솟아오르는 태양 앞에서 넋을 잃는다거나 달콤한 체리향기에 몰입한다거나하는 것들입니다. 몰입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삼매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체리향기>를 일상 속의 삼매를 추구하는 영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체리향기>의 압바스키아로스타미 감독은 우리나라에서도 꽤 유명한 감독입니다. <올리브 나무 사이로> <그리고 삶은 계속 된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등 소위 지그재그 3부작이라는 영화를 통해 세계적으로 마니아층이 두터운 감독입니다. 그의 영화는 소위 영혼을 위한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화를 보고 나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조금 더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체리향기>는 압바스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최고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작품으로 1997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뛰어난 영화입니다. <체리향기>는 죽음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영화입니다. 삶의 목적을 찾고, 삶을 보다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일러주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답은 일상 속에서 삼매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인공 버디는 차를 타고 누군가를

부터 어린 군인은 버디에게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임도 받아버립니다. 그러다가 버디가 한 눈을 판 사이 달아나버립니다. 악마에게서 도망치듯 출행량을 잡니다.

버디가 다음으로 선택한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가난한 신학생입니다. 앞에서는 버디가 군인을 설득하려 했다면 이번에는 신학생이 버디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버디는 다른 사람을 찾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노인을 만납니다. 노인은 자연사박물관에서 새를 박제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남자입니다. 노인은 앞의 둘과 달리 버디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일단은 버디의 제안을 수락했지만 그러나 노인은 버디의 잘못된 마음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앞에서 신학생이 이슬람교 교리를 통해 설득을 했다면, 노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 삶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경험에서 우러나온 삶에 대한 예찬은 버디의 마음을 조금 움직였습

니다. 무심결에 노인은 오디 하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를 먹다가 두 개를 먹고, 계속 먹었습니다. 마침 해가 멋진 모습으로 떠오르고 등교하는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노인에게 오디나무를 흔들어달라고 졸랐습니다.

노인은 아이들을 위해 오디나무를 흔들어주고, 마침내 오디를 한 바구니를 따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늦게 일어난 아내

는 노인이 따온 오디를 보자 행복해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살하려 갔던 노인은 오디를 먹으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오디를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졌고, 모든 걸 새롭게 보게 됐다는 것이지요.

이 행복이라는 것이지요. 온전하게 현재를 느낀다는 의미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삼매에 드는 것이지요. 즉 일상속 삼매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생각이나 편견에 사로잡혀 아까운 삶을 낭비하지 말고 매순간 깨어서 살아가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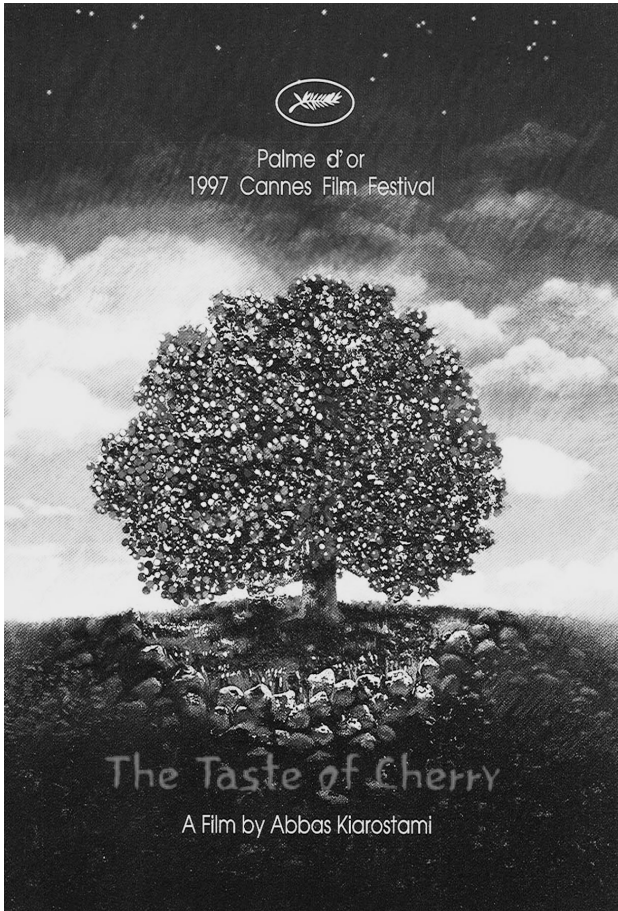
부처님의 이름 중에는 '여래(如來)'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여함(如如), 이와 같음(如是)을 의미합니다. 여기가 전부이며, 지금이 전부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을 다큐멘터리 영화 <위대한 침묵>에서도 들었습니다. 봉혜 수도원에서 오랜 시간 수행을 해온 신부님이 하신 말인데, 인간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오직 현재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다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사실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화 <체리향기>에서 죽고 싶어 하는 버디를 설득하기 위해 노인이 한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현재에 머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일상속의 삼매를 위한 주문인 것이지요.

"이른 아침 붉은 태양이 물드는 하늘을 본 적 있으? 보름달 뜬 밤의 고요함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으? 솟아오르는 샘물을 더 이상 마시고 싶지 않아요? 차가운 시냇물에 발을 담고 싶지 않아요? 체리 맛을 포기하고 싶은 건가요?"

- 자유기고가 김은주 -



진리의세계, 불보살의 세계

만다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태장계 만다라>

'대일정'에 근거하여 그려진 대자대비이신 부처님의 마음을 모태에 비유하고 그 모태안에서 인간의 불성을 성장시켜 나가는 활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태장계 만다라는 중앙의 중대팔엽원을 중심으로 12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천, 신등 모두 414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금강계 만다라>

'금강정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금강계 만다라는 중앙의 성신회를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만다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천, 현점천불등 모두 1,461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 ※ 구성표
- ▲ 태장계만다라, 금강계만다라 set 33cm×33cm(액자포함) (30,000원)
- ▲ 가정다라니 46cm×27cm(액자포함) (27,000원)



# 총지종 전국 사원 호국안민대법회

## 해탈과 방생의 의미를 가슴에 새긴 뜻 깊은 하루



▲ 서울 밀인사

7월 16일 지루했던 장마는 오간데 없고, 화창한 날씨가 호국안민 기원 대법회의 출발을 응원하는 하루였다. 각 사원 별로 진행된 이날 법회는 49일 불공회향과 해탈절을 맞아 방생과 함께 진행되었다. 아침 8시 서울 총지사는 강원도 동해로, 부산·경남교구는 경남 하동으로, 대구 개천사는 전남 구례로 교도들을 태운 버스가 출발했다. 교도들은 버스가 고속도로에 오자 차량안전을 위한 불공을 드렸다. 불공이 끝나자, 아침 일찍 출발한 교도들을 위해 신정회 임원들과 스승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김밥과 음료수 등 간식을 나누며, 오늘 일정에 대해 얘기했다. 시원하게 고속도로를 달린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미리 출발하여 법회를 준비하는 교도들의 분주한 모습이 보인다. 모두가 버스에서 내려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호국안민기원대법회가 열리는 장소로 이동. 잠시 후 장엄하고 간절한 서원으로 시작된 법회에서 스승님들은 “호국안민기원대법회와 해탈절 방생을 맞아 교도 여러분들의 서원이 모두 이뤄지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법회를 마친 후, 방생을 하는 교도들은 모두가 한 생명으로 자유를 맞기를 빌며 준비한 생명을 강물에 띄워 보냈다. 지역의 특산물로 준비된 점심 공양을 한 후, 각 사원별로 가까운 사찰 탐방에 나섰다. 서울 총지사는 삼척에 위치한 ‘신흥사’를 방문하였다. 신흥사는 신라 말 833년에 창건된 사찰로 현재는 조계종단에 소속이다. 영화 ‘봄날은 간다’ 촬영지로도 유명한 신흥사는 울창한 송림과 대나무 숲을 배경으로 천년을 넘어 자리를 지켜왔다. 특히 대웅전 옆 소나무와 배롱나무가 하나로 붙어 공생하는 모습은 교도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사찰에서 준비한 시원한 수박 공양도 받고, 모두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길을 나서야 했다. 즐거운 하루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는 찬불가도 부르고, 모두가 흥에 겨워 장기를 뽐내는 시간도 가졌다. 바쁜 일정에 모두들 피곤하였지만 내년에는 전국의 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기대와 서원으로 돌아왔다. 또한 오늘 같이 참석을 하지 못한 교도들도 방생의 공덕을 함께 나눌 것을 다짐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교도들은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한가족이라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는 즐겁은 시간이었다.

동해=김종열 기자



▲ 대전 백월사



▲ 포항 수인사



▲ 대구 개천사



▲ 서울 총지사

